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멕시코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 일반

1. 국가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5
3. 경제현황	9
4. 정치	11
5. 주요산업	13

II. 무역

1. 수출입	14
2. 한국과의 수출입	23
3. 수출 유망항목	26
4. 무역협정	29
5. 수입규제 및 관세	31
6. 통관 · 물류	35

III. 투자

1. 투자환경	41
2. 외국인직접투자	49
3. 한국기업 투자	50
4. 투자진출방식	54
5. 외환	58
6. 노무	60
7. 세무	63
8. 지식재산권	64
9. 청산 및 철수	65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69
2. 비즈니스 에티켓	72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75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5.출입국 안내	77
6.유관기관	79
7.물가정보	81
8.출장정보	83
9.생활정보	85
10.KOTRA 무역관 안내	95
11.전시회 정보	102
	103

1.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멕시코합중국 (Estados Unidos Mexicanos)
면적	1,964,375 km ²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 Book, 2023년)
수도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CDMX)
인구	129,875,529 명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 Book, 2023년)
민족(인종)	메스티소(아메리카인디언-스페인인 혼혈) 62%, 아메리카 인디언 21%, 아메리칸 7%, 기타(대부분 유럽 계) 10% *2012년 추정치이며 현 시점 기준, 멕시코는 민족에 대한 인구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언어	스페인어 93.8%, 스페인어-토착어 혼용 5.4%, 토착어(마야어, 나후아트) 0.6%, 기타 0.2%
종교	카톨릭 78%, 개신교 11.2%, 무교 10.6%, 그 외 기타 0.002%
기후	지역 및 고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분포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저지대는 고온다습, 고지대는 온난건조 ○해안지대는 열대성 기후로 연중 고온다습 ○북서쪽 연안 저지는 반사막의 건조지대 ○중앙부 고원(멕시코시티 포함)은 연간 온난건조한 기후 ○나머지 지역은 아열대 기후
국가원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AMLO)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62-01-26 (자료원 : 주 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멕시코 문화 협정	1966-04-29	문화, 예술 교류 등	
한-멕시코 무역 협정	1966-12-12	경제 통상 분야 교류 확대 등	
한-멕시코 사증면제 각서	1979-03-05	관광목적의 입국, 기한 내 체류에 대한 사증 면제	
한-멕시코 항공 협정	1988-07-21	합의된 항공기의 영공 통행, 운수권 설정 등	
한-멕시코 경제 과학 기술 협력 협정	1989-11-09	국가 개발정책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 장려, 촉진	
한-멕시코 이중 과세 방지 협약	1994-10-06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	
한-멕시코 범죄인 인도 조약	1996-11-29	청구국 영역 안에서의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인도	
한-멕시코 외교관관용 사증 면제협정	1997-06-27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	
한-멕시코 투자 보장 협정	2000-11-14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최혜국 대우, 수용(Expropriation)의 제한 및 보상, 송금 보장 등	
한-멕시코 세관 협력 협정	2005-09-09	세관 상호지원,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 구축 등	
한-멕시코 형사 사법 공조 조약	2007-01-18	증거 및 진술의 취득, 사람 및 물건의 소재파악, 서류 송달,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증거물의 제공 등	

한-멕 원자력 협력 협정	2012-06-08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	
---------------	------------	--------------------	--

한국교민 수

13,158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동포현황(2023))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1) 고위급 교류

한국은 멕시코와 1962년 수교 이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결속하였으며 2022년 양국 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였다.

-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중남미 순방 중 멕시코 국방장관과 국방 보훈 협력 논의 (2021)
- 여승배 차관보, 멕시코 외교차관과 경제 안보·공급망 협력을 논의(2022)
- 한-멕 외교장관회담 회의 개최,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 (2022.7)
- 양국 정상 간 수교 60주년 축하 메시지 교환 (2022.1)
-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국 특사단의 멕시코 방문('22.10)
- 박진 외교부장관, 멕시코 방문하여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회담 진행 ('23.5)

2) 자연재해 지원

한국은 멕시코에서 각 종 자연재해 발생 시마다 적극 지원하였고, 멕시코 정부 측은 한국이 뜻 깊은 연대감을 표명해준 데 깊은 사의를 표했다.

- 멕시코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현금 100만 달러) 전달 (2017.9)
- 멕시코 치아파스 수해에 대한 주멕시코대사관의 지원물품(쌀, 콩, 생수 등)을 전달 (2020.5)

3) 자매도시

한국과 멕시코는 서울-멕시코시티('92), 대전-과달라하라('97), 인천-메리타('07) 등 자매도시를 다수 체결하였다. 2022년은 서울시-멕시코시티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소나로사 인근에 서울공원(Plaza de Seul) 조성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설치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4) 6.25 참전용사

멕시코는 6.25 참전 16개국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 수많은 멕시코 병사가 미군 소속으로 한반도에서 싸웠다는 것이 최근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2021년 한국전쟁 멕시코 참전용사회가 출범하였으며,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포스코 멕시코의 초청으로 멕시코의 참전용사 3명이 방한하기도 하였다.

(자료원: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및 일간지)

경제

1) FTA

한국과 멕시코는 서로의 중요한 교역파트너('23년 기준 한국은 멕시코의 제 3위 교역국, 멕시코는 한국의 14위 교역국)로 양국은 FTA 체결을 협상 중이다. 한-멕 FTA 체결 시 GDP 증가, 교역 증대, 교역의 균형과 다양화, 투자 증대, 교역 다변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한-멕 SECA 추진합의 (2005)
- 다섯 차례 공식협상 개최('06.2, '06.4, '06.6, '07.12, '08.6)
- 협상 재개 선언 (2022.3)

2) 유사한 산업구조

한국과 멕시코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많으며, 양국 간 교역 품목도 산업 내 무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 내 무역: 각 국가가 동일 산업 내에 속하는 제품을 동시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 형태

3) 산업협력

한국과 멕시코는 2021년 경제포럼에서 디지털 의제, 그린의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2022년 한-멕시코 항공우주 분야 산업협력을 강조하였다.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FTA)

문화

1) 한류

멕시코는 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대부터 K-pop이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22년에는 오징어게임, 2023년에는 더글로리아가 멕시코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멕시코의 고위인사들도 한류에 호의적이다. 2022년 당시 주한 멕시코 대사(Bruno Figueroa)가 방탄소년단의 삼성 광고를 환호하며 본인의 SNS 계정에 공유한데 이어, 2023년에는 멕시코의 외교장관이 멕시코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에 직접 참가하고 후기를 SNS에 공유하였다.

2) 한인구역

한국기업들이 다수 진출함에 따라 멕시코시티의 소나로사(Zona rosa), 몬테레이의 페스케리아(Pesqueria) 등 지역에는 한식당, 한국식 선술집, 한국 화장품 매장 등이 몰려 있는 한인구역이 생겨났다. 한류 인기에 따라 최근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도 다수 방문하고 있다.

3)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2012년 한국문화원 개원, 2019년 12월 국립문화박물관(Museo Nacional de Culturas) 한국관 개관을 비롯하여 멕시코 내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개소된 멕시코 나야리트 대 한국학과는 중남미 유일의 한국학과*이며, 멕시코 국립 자치대학교(UNAM), 콜리마 대학교(UCOL), 누에보레온 자치대학교(UNANL) 등 교양수업으로 한국어수업을 제공하거나 한국어 어학당을 운영하는 대학교도 다수이다. 멕시코시티에서는 문화원이 세종어학당과 연계해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케레타로 공과대학교는 대학교 차원에서 세종학당을 유치하였다.

한국어 외 K-pop 댄스를 배울 수 있는 학원, 한국식 메이크업을 배울 수 있는 뷰티샵 등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중남미의 한국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교 중 한국학과는 나야리트대가 유일, 나머지 대학교는 아시아학부 한국어과, 한국어교육과 등

4) 한국문화원 10주년

2022년은 한국 문화원 개원 10주년으로 이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 멕시코 아리랑 공쿠르 개최(2022.3)
- 문화원과 복권당국 간 협업으로 한국 전통 춤(승무, 부채춤, 장고춤)의 이미지를 담은 멕시코 국영 복권 특별 에디션을 발행 (2022.5)
-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22.7)

5) 한국의 날 지정

멕시코는 1905년 1천여 명의 한인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용설란) 농장으로 이주한 날을 기리기 위해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히 멕시코 연방 차원에서 특정 국가 이민자의 날을 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 유카탄 주와 캄페체주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날 지정 (2019)
- 멕시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날 지정 (2021)

6) 한-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2022년은 한-멕시코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 한국에서 개최된 멕시코의 고대문명을 소개하는 아즈테카 문명전 개최
- 멕시코 과나후아또에서 개최된 세르반티노 축제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	-0.2	-8	4.7	3.1	
명목GDP (십억\$)	1,269	1,090.5	1,272.8	1,414.1	
1인당 GDP (PPP, \$)	20,768.1	19,174.6	20,789.7	22,726.2	
1인당 명목 GDP (\$)	10,025.5	8,533.5	9,869.1	10,867.8	
정부부채 (% of GDP)	44.5	51.6	50.8	49.7	
물가상승률 (%)	3.6	3.4	5.7	7.9	
실업률 (%)	3.5	4.4	4.1	3.3	
수출액 (백만\$)	460,604	417,170.7	494,764.5	578,193.4	
수입액 (백만\$)	455,241.6	382,985.9	505,703.1	604,614.6	
무역수지 (백만\$)	5,362.4	34,184.8	-10,938.6	-26,421.2	-
외환 보유고 (백만\$)	178,309.1	189,447.3	196,556.2	199,257.1	
이자율 (%)	8.4	5.5	4.7	8.2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9.3	21.5	20.3	20.1	

<자료원 : IMF, 멕시코 중앙은행,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

나. 경제 동향

1)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 둔화추세

인플레이션은 2022년 내내 가장 화두였던 거시경제지표로, 2021년 3월 이래 멕시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3(±1)%를 이탈한 뒤 최근 20년간 최고수치인 8.7%대까지 치솟았다. 멕시코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3회에 걸친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를 도입하고 유류보조비를 지급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물가 상승률은 '23년 6월 6.7%, 9월 4.6%을 기록하였다.

2) 환율: 슈퍼페소

'22년 연말 달러당 19페소에서 '23년 5월 17페소대로 점차 하락 이후 강페소 기조로 고착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3년 8월 1달러당 16.91페소로 연간 13%(달러당 3페소) 평가 절상하였다. 멕시코 페소는 신흥시장 화폐들 중 환율변동성이 적은 편이며, 그 이유로는 달러의 상대적 약세와 멕시코 중앙은행의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꼽힌다.

3) 노동시장: 실업률 역대 최저

'23년에는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에 등록된 근로자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3년 6월 실업률은 2.68%를 기록하여 OECD에서 3번째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다. 경제 전망

1) 경제성장률: '24년 1.5% 대의 경제 성장 전망

2023년 인플레이션 안정에 따른 금리인상 완화로 경제 재활성화되어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멕시코의 '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초반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4년에는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및 러-우 전쟁의 불확실한 행방등으로 인한 대외 수요 감소, 물가 안정 불확실성 및 멕시코의 거버넌스 미흡으로 1%대의 저성장으로 전망한다

2)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 안정세 진입

2022년 8월 8.77%까지 치솟으며 멕시코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 요인으로 꼽혔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상반기부터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멕시코 재무부는 2024년 연말에는 3.8%대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4. 정치

가. 정치체제

멕시코는 연방 국가로 연방 정부는 대의제를 따르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1917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1) 연방정부의 구성

연방정부는 삼권 분립 제도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 입법부: 양원제이며 연방 법 제정, 국가 예산 승인, 국제 조약 비준 등의 권한이 있다. 상원은 128석으로 96석은 멕시코 전역 32개주에 3석씩 배분되며, 나머지 32석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하원은 500석으로 300석은 선거구별 소선거구제로, 200석은 전국을 5개로 나눈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상원과 하원의 임기는 6년, 3년이며 연임이 불가하다.
- 행정부: 대통령이 수반이며 멕시코 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임기는 6년으로 단임제이다. 현 대통령은 2018년 12월 1일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pez Obrador)로 통상 AMLO로 칭해진다.
- 사법부: 대법원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고등법원은 11개 순회 재판소로 구성되는데, 6개는 일반/민사/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5개는 인권보호 재판소로 기능한다.

2) 멕시코의 주요 정당

멕시코의 주요 정당은 1) 국가재건운동당(MORENA,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 2) 국민행동당(PAN, Partido Acción Nacional), 3)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이다. 각 정당은 좌파, 우파, 중도의 성향을 띤다. 멕시코는 1929년 제도혁명당(PRI) 결성 이래 일당 우위 정당제를 유지하다가, 2000년 국민행동당(PAN)의 비센테 폭스 대통령이 취임하며 71년 만에 여-야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후 2012년 다시 제도혁명당(PRI)으로 정권이 다시 교체되었다가, 2018년에 국가재건운동당(MORENA)의 AMLO 대통령이 취임하며 89년만의 좌파 정권이 시작되었다.

(자료: 멕시코 연방의회)

나. 최신동향

1) 현 정권 성향

현 대통령인 안드레스 오브라도르(AMLO) 대통령은 2018년 53.1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집권 이래 60% 내외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AMLO 정부는 친노동, 자원민족주의, 보호주의 성향이 뚜렷하다.

- 친노동: 아웃소싱을 금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친노동자 정책을 확대하였다. 연방노동법 개정('20.11)을 통해 특수용역 외 일반 하도급 계약금지, 정규직 전환 장려하였고, 2023년 월 최저임금(6,223.2페소, 약 345달러)은 현 정권 집권 이전인 2018년(2,687.6페소, 약 136.7달러) 대비 약 2배 상승하였다.
- 자원민족주의: 자원에너지 자립을 강조하며 전력산업법, 탄화수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前정부의 에너지시장 자유화 정책을 철회하였으며, 석유공사(PEMEX)와 연방전력청(CFE) 등 국영기업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 보호주의 멕시코 내 공공조달 참여 시 자국기업에게 최우선권, FTA 체결국 기업에게 차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보호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다. 2022년 EIU Country Report에서는 멕시코 정부의 보호주의 성향(국가주도의 경제 발전 정책 및 예측가능성 낮은 규제제도)을 멕시코 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지목하였다.

2) 2024년 대선 및 상하의원 선거

2024년 6월 2일 대선 및 9개 주 주지사, 상하의원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국가재건당(MORENA)에서는 전 멕시코시장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과 야당연합 '광역전선(Coalición Frente Amplio por México)'에서는 전 상원의원 소치틀 갈베스(Xochitl Galvez)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가장 유력한 두 정당에서 모두 여성 후보가 출마하여, 1824년 연방정부 수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로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23년 10월 기준 지지율 56.5%), 소치틀 갈베스(Xochitl Galvez) ('23년 10월 기준 지지율 32%)로 조사되었다.

(자료: Mitofsky 여론조사, EIU Country Report 및 각종 언론지)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멕시코는 북미 및 중남미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FTA 적극 추진 중으로, 52개국과 14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전세계 GDP 규모의 60%이자 13억 인구에 해당하는 소비시장에 대한 관세혜택을 확보하고 있다.

1994년 북미자유협정(NAFTA) 체결 이후 국제 경제 및 통상에서 멕시코의 입지가 강화되었으며, 기존의 NAFTA 협정이 2020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재편되어 역내가치비율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을 대신할 차기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멕

시코는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2022년 기준 멕시코 전체 수출의 81.8%, 전체 수입의 43.8%가 대미교역이다.

(자료: 멕시코 외교부,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 등)

라. 정책 · 법령

멕시코의 법률 체계는 대륙법(성문법 체계)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의 법률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된다. 주로 법률 및 시행령을, 보조적으로는 판례/관습/규범/일반원칙을 기초로 한다. 법령들은 종류에 따라 크게 1) 헌법(La constitucion), 2) 조약(Tratado internacional), 3) 기본법(Ley orgnica), 4) 연방법률(Ley federal), 5) 명령(Decreto), 6) 법규명령(Reglamento)으로 구분된다.

AMLO 정부의 핵심공약은 ① 적폐청산, ② 빈곤타파, ③ 안전확보로, 멕시코 정부는 국가개발정책(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9-2024)에 의거하여 12대 분야에 공공지출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중점추진 12대 분야: 1) 치안 및 시민의 건강보장, 2) 에너지 분야 강화, 3) 모두를 위한 교육, 문화, 체육, 4) 고용 및 복지, 5) 통신, 교통 및 지역 인프라 지원, 6) 공공보건, 7) 안보 및 평화, 8)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 9) 자치기관 지원, 10) 농촌활성화, 11) 일반행정 및 부패청산, 12) 멕시코 연방정부 효율화

(자료: 멕시코 연방의회, 국가개발 정책, 세계법제센터)

5. 주요산업

가. 개요

멕시코의 각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1차 산업(4.4%), 2차 산업(33.8%), 3차 산업(61.8%)이며, 2차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이 58.5%로 큰 편이다.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식품(21.5%), 운송수단(19.8%), 컴퓨터(8.4%) 순이며, 멕시코 총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품목(자동차부품, 기계류, 전자기기)는 모두 제조업 제품이다. 제조업 발달로 특히 북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있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자동차) '22년 기준 세계 7위 자동차 생산국, 세계 3위 상용차 생산국이자 세계 4위 자동차부품 생산국으로 멕시코 GDP의 4.5%, FDI의 11.7%를 차지

- 멕시코에는 총 13개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2천여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 진출, 한국기업으로 기아, 현대 및 200여개 이상의 한국계 자동차 부품 기업도 진출함

(항공우주) '22년 기준 세계 14위 항공우주분야 공급국, 세계 6위 대미 항공부품 수출국, 세계 3위 항공우주분야 FDI 유치국, 항공우주 산업은 멕시코 GDP의 0.4%

- 풍부한 노동력 및 낮은 생산비용으로 멕시코 내 전체 항공우주 기업 중 약 80%는 제조 분야에 종사하며, 그 외 MRO(유지보수점검) 11%, 설계 및 디자인 10% 순

(뷰티) '22년 기준 세계 11위이자 중남미 2위 뷰티시장, 뷰티 산업은 멕시코 제조업의 0.3%차지하는 산업

- 코로나 이후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코로나 기간 주춤했던 색조화장 판매도 회복 중

(의료바이오) '22년 기준 세계 15위이자 중남미 2위 제약 시장, 의약품은 멕시코 GDP의 0.22%, 의료서비스 시장은 멕시코 GDP의 2.74%

- 멕시코의 국민의료수준은 아직 낮은 편으로 멕시코 정부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 추진 중, 의료 격차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도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기위한 정부의 의료인프라 투자 확대 중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멕시코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로, 중간재를 수입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조립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이 발달하였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멕시코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한국, 캐나다 순이며 특히 이 중 대미 교역의 비중이 80%에 달한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78,371,682,864
2	캐나다	20,485,976,508
3	North America and Central America, nes	12,695,821,310
4	중화인민공화국	9,254,427,181
5	독일	9,114,934,143
6	Other Asia, nes	7,091,847,056
7	대한민국	6,045,555,594
8	일본	5,687,052,683
9	스페인	5,648,271,263
10	브라질	5,447,068,98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45,361,799,047
2	캐나다	15,854,473,336
3	중화인민공화국	9,916,920,542
4	Rest of America, nes	8,744,788,547
5	독일	8,465,763,291

6	대한민국	6,807,123,673
7	일본	5,267,724,916
8	Other Asia, nes	4,942,925,906
9	Areas, nes	4,727,738,544
10	영국	4,726,692,443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92,967,841,395
2	캐나다	19,731,260,082
3	중국	11,119,109,255
4	독일	10,382,989,433
5	스페인	6,064,761,009
6	일본	5,753,131,642
7	영국	5,612,984,835
8	브라질	4,924,773,398
9	인도	4,465,808,051
10	콜롬비아	4,267,833,913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420,106,444,848
2	EU	28,627,116,621
3	캐나다	28,461,525,885
4	독일	9,557,408,669
5	일본	6,224,554,843
6	스페인	6,212,206,779
7	영국	5,315,037,970
8	브라질	4,969,909,769
9	호주	2,889,202,929

10	스위스	2,157,715,005
----	-----	---------------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11,006,667,532
2	중화인민공화국	84,400,418,498
3	독일	18,929,685,013
4	일본	18,605,051,714
5	대한민국	18,025,268,466
6	말레이시아	11,888,537,449
7	캐나다	10,892,715,254
8	Other Asia, nes	9,430,137,649
9	브라질	8,364,484,185
10	타이	6,344,359,47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73,062,808,272
2	중화인민공화국	75,461,545,524
3	대한민국	15,146,128,088
4	독일	15,103,207,928
5	일본	14,483,279,057
6	말레이시아	11,083,711,061
7	Other Asia, nes	8,880,318,767
8	캐나다	8,676,346,282
9	베트남	6,692,126,501
10	브라질	6,320,324,731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23,889,994,426
2	중국	102,228,388,437
3	한국	18,963,156,999
4	독일	18,507,937,349
5	일본	17,633,705,474
6	말레이시아	12,845,920,083
7	캐나다	11,894,831,687
8	브라질	10,096,743,611
9	베트남	8,608,257,200
10	이탈리아	6,516,730,414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03,183,191,307
2	EU	49,332,048,879
3	독일	16,524,918,879
4	일본	10,161,397,583
5	캐나다	6,604,475,173
6	브라질	6,526,386,329
7	스페인	5,123,836,482
8	홍콩	4,277,900,012
9	네덜란드	3,849,070,486
10	아일랜드	2,208,465,121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멕시코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기계류/전자기기, 주요 수입품은 전자기기/기계류/광물원료/플라스틱 순이다. 특히 멕시코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3대 품목은 모두 제조업 제품이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5,131,794,232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6,401,757,474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1,098,990,129
4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697,552,400
5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7,773,287,444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11,095,465,676
7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10,927,909,235
8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0,454,286,448
9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10,209,449,108
10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7,962,964,40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9,667,711,426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0,490,162,840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24,446,805,067
4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405,810,516
5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5,503,445,797
6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10,809,894,278

7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9,744,548,358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8,516,885,563
9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7,665,156,731
10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6,679,726,942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3,182,835,666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22,668,409,207
3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134,787,545
4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9,663,139,970
5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13,696,759,596
6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9,580,191,232
7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8,420,149,629
8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163,744,868
9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7,938,954,608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7,188,966,302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253,265,659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9,140,032,123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3,000cc시 이하인 것	24,539,510,780
4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9,749,066,147
5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초과 1,500cc시 이하인 것	12,558,698,222
6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1,918,630,428
7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11,660,586,842
8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9,852,017,533
9	901890	그 밖의 기기	8,311,781,407
10	870829	기타	7,439,747,278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7,976,314,631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7,508,670,290
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럭(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2,855,665,412
4	271019	기타	12,275,630,577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95,499,027
6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107,368,690
7	847170	기억장치	5,566,445,175
8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5,562,612,012
9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5,529,984,679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3,000cc시 이하인 것	5,373,334,50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8,027,052,816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2,450,869,928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9,560,465,580
4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86,838,392
5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079,168,734
6	271019	기타	5,594,128,964
7	847170	기억장치	5,075,840,373
8	271121	천연가스	4,447,905,123
9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4,431,392,284
10	901380	그 밖의 기기	4,365,083,918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9,547,727,980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5,646,916,519
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3,361,054,726
4	271121	천연가스	11,917,398,193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468,663,223
6	271019	기타	9,140,092,199
7	901380	그 밖의 기기	6,932,790,384
8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050,549,102
9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5,516,778,583
10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5,099,837,464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5,463,306,892
2	271019	기타	18,496,196,269
3	271121	천연가스	11,577,243,217
4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0,308,533,502
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9,915,865,651
6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6,427,800,257
7	870899	기타	5,601,795,690
8	100590	기타	5,491,705,161
9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5,431,418,142
10	120190	기타	4,075,012,363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22년 기준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은 멕시코의 3대 교역국이며, 멕시코는 한국의 14위 교역국(10위 수출대상국, 18위 수입대상국)이다. 특히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내 제 1 교역대상국으로 2022년 기준 한국의 對멕시코 수출액은 중남미 전체의 47.6%로, 편의치적 통계 제외 시 51.5% 상당이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22년 기준, 한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127억 달러, 수입은 86억 달러이다. 한국의 對멕시코 무역수지는 5년 이상 연속 흑자로 멕시코는 한국의 주요 수출효자국 중 하나이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9	10,927	6,160	4,767
2020	8,241	6,356	1,885
2021	11,290	7,889	3,401
2022	12,654	8,577	4,077
2023	10,198	6,333	3,86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한국의 對멕시코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아연도강판, 합성수지, 냉연강판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아연광, 기타금속광물, 자동차부품 등이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1,823	551	1,271
2	6134	아연도강판	918	1	917
3	8361	평판디스플레이	651	28	622
4	6133	냉연강판	654	4	649

5	2140	합성수지	749	9	739
6	7112	펌프	364	20	344
7	7411	승용차	120	328	-208
8	8311	집적회로반도체	373	80	292
9	6132	열연강판	397	0	396
1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81	20	16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20	자동차부품	1,547	521	1,026
2	6134	아연도강판	727	1	726
3	8361	평판디스플레이	574	23	551
4	6133	냉연강판	537	2	535
5	2140	합성수지	517	10	507
6	7112	펌프	390	17	373
7	7411	승용차	355	261	94
8	8311	집적회로반도체	268	36	232
9	6132	열연강판	257	0	257
1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64	12	15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3,860	-3,861
2	1190	기타금속광물	0	967	-968
3	7111	원동기	10	109	-99
4	7420	자동차부품	1,823	551	1,271
5	1160	아연광	0	434	-435
6	7411	승용차	120	328	-208
7	6221	동괴및스크랩	0	311	-311

8	8147	의료용전자기기	17	161	-144
9	7331	의료용기기	17	143	-127
10	1130	동광	0	73	-7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1,878	-1,878
2	1190	기타금속광물	0	612	-612
3	7111	원동기	15	594	-579
4	7420	자동차부품	1,547	521	1,026
5	1160	아연광	0	402	-402
6	7411	승용차	355	261	94
7	6221	동괴및스크랩	1	208	-207
8	8147	의료용전자기기	15	160	-145
9	7331	의료용기기	13	144	-131
10	1130	동광	0	87	-8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항공 부품

HS CODE	8803	수입액 (US\$백만)	93
수입관세율(%)	0~5	대한 수입액 (US\$백만)	0.06
선정사유	멕시코는 세계 6위 항공 제조국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14% 성장		
시장동향	항공산업의 꾸준한 성장세, 북미와 근접한 지리적 이점, 저렴한 인건비, USMCA의 요인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꾸준히 증가 중		
경쟁동향	항공 부품 수입의 96%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 프랑스 등에서 수입 중		
진출방안	단조 공정이 필요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X-RAY

HS CODE	9022	수입액 (US\$백만)	363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8
선정사유	진단을 위해 X-ray나 초음파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해상도가 높고 이동성 좋은 제품 선호		
경쟁동향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에서 수입 중		
진출방안	한국 브랜드 및 장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 의약품

HS CODE	3004	수입액 (US\$백만)	3,203
수입관세율(%)	15	대한 수입액 (US\$백만)	29
선정사유	현재 멕시코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시장동향	심혈관 및 종양 관련하여 수요가 높은 관계로 경쟁력을 갖춘 공급업체에 관심		
경쟁동향	수입은 주로 미국의 대형 제약 회사와 인도의 경우 낮은 가격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		
진출방안	현지 기업과의 시너지를 목표로 한 기술 이전과 제휴가 관건. 공공 입찰 참여 시 '동등성 계약' 적용으로 관련 인증 절차 간소화		

○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액 (US\$백만)	662
---------	------	--------------	-----

수입관세율(%)	10~15	대한 수입액 (US\$백만)	19
선정사유	K-Drama, K-pop에 대한 관심 증가로 K-Beauty에 대한 관심 고조		
시장동향	일반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에 등에 대한 수요 증대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인 미국, 프랑스, 콜롬비아, 중국, 브라질의 브랜드가 다수 진출해 있어 경쟁 치열		
진출방안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과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 자동차 부품

HS CODE	8708	수입액 (US\$백만)	25,961
수입관세율(%)	0~5	대한 수입액 (US\$백만)	994
선정사유	멕시코 완성차 제조기업 다수 진출, 유통 원활		
시장동향	내수 및 북미 시장, 중남미 시장 진출 유리		
경쟁동향	캐나다,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 자동차 부품사들이 진출해 있어 경쟁 치열		
진출방안	전기자동차와 스마트 부품 중심으로 진출 유망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전자 교육 플랫폼

선정사유	코로나 이후 원격 교육 확대로 멕시코 내 에듀테크 수요 증가세
시장동향	원격 학습 조치 및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성장 중으로, 수요가 많은 온라인 과정은 언어 수업과 기본 컴퓨터 과정임
경쟁동향	국내외 기업이 있으며 해외 기업이 시장 주도
진출방안	검색 엔진을 활용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진출 초기 친숙한 접근 전략 필요

○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국가 GDP 6% 차지, 매년 10% 정도 성장세를 기록하는 유망 사업. 한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 친밀도 증가
시장동향	현지 브랜드 및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가 있으나, 한류 및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 증가세
경쟁동향	1,5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으며, 그 중 84%가 국내 브랜드임. 요식업과 서비스업이 시장 주도
진출방안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현지 문화에 적합한 품목 선정 후 단계적인 진출 필요

○ 로봇

선정사유	코로나 이후 노동집약적이었던 제조산업 타격에 따라 공장 자동화 수요 증가
시장동향	멕시코의 로봇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다수 기업들이 도입에 관심 있음
경쟁동향	주로 미국 기업들이 시장 주도
진출방안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회 등에서 제품 지속 노출

○ 원격의료

선정사유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 차원의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 계획 진행 중으로 한국 기업 진출 유망
시장동향	모바일 및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 의학, 영양학, 심리학 등 건강 서비스 제공
경쟁동향	심리상담, 초기 진단 및 전문의 상담 등 솔루션 로컬 기업 다수
진출방안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 인터넷망 확장 등으로 원격의료기기, 솔루션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멕시코-영국 무역지속협정	영국	2020-12-15	2021-01-01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무역 연속성을 위한 협정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미국, 캐나다	2018-11-30	2020-07-01	다자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개정한 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영국)	2018-03-08	2018-12-30	다자무역협정, 2023년 7월 브루나이 발효로 11개 서명국 모두 발효, '23년 7월 영국이 12번째 회원국 가입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콜롬비아, 페루, 칠레	2014-02-10	2016-05-01	다자무역협정
멕시코-파나마 FTA	파나마	2014-04-03	2015-07-01	
멕시코-중미 FTA	중미 5개국(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2011-11-22	2013-09-01	니카라과 (2012.9), 엘살바도르 (2012.9), 온두라스 (2013.1), 코스타리카 (2013.7), 과테말라 (2013.9)
멕시코-페루 (ACE 67)	페루	2011-04-06	2012-02-01	
멕시코-볼리비아 (ACE 66)	볼리비아	2010-05-17	2010-06-07	
멕시코-일본 경제협력협정	일본	2004-09-17	2005-04-01	
멕시코-우루과이 (ACE 60)	우루과이	2003-11-15	2004-07-15	
멕시코-ALEC(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FTA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2000-11-27	2001-07-01	
멕시코-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2000-04-10	2001-07-01	
멕시코 - 메르코수르 (ACE 55)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2002-09-27	2003-01-15	2022년 아르헨티나, 브라질과의 협정이 개정되어 수입관세 인하
멕시코-EU FTA	EU 회원국	1997-12-08	2000-10-01	

멕시코-칠레 (ACE 41)	칠레	1998-04-17	1999-08-01	
멕시코-콜롬비아 (ACE 33)	콜롬비아	1994-06-13	1995-01-01	

<자료원 : 멕시코 정부 및 현지 언론자료 종합>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멕시코-EU FTA(TLCUEM) 개정	멕시코, EU 회원국	2020. 4. 28 협정문 개정 관련 협상 타결. 각국 의회의 비준 및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	멕시코-EU FTA를 개정한 협정
멕시코-에콰도르 FTA 개정	에콰도르	2022.10월 에콰도르산 새우 및 바나나 외 타 부분 합의 완료 2023.1월 멕시코가 에콰도르산 새우 및 바나나를 제외시킴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 중단 상태	
멕시코-한국 FTA	한국	2022.3.1 자유무역 협정을 위한 협의 재개되었으나 교착 상태	
멕시코-영국 FTA	영국	2022.5.20 협상 시작	멕시코-영국 FTA를 위한 협의 선언

<자료원 : 멕시코 정부 및 현지 언론자료 종합>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72091601,72091701, 72255002,72255003, 72255004,72255099	냉연강판(Flat cold-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20.11.6 ~ 2025.11.5	○ 판정결과 : 포스코만 적용 · 2019.01.01 ~ 2019.12.31 : 547,500 t · 2020.01.01 ~ 2020.12.31 : 573,906 t · 2021.01.01 ~ 2021.12.31 : 596,508 t · 2022.01.01 ~ 2022.12.31 : 620,044 t · 2023.01.01 ~ 2023.12.31 : 661,586 t
2	29173201	디옥틸 프탈레이트 (Diocetyl Phtalate DOP)	반덤핑(규제중)	한국, 미국	○ 부과기간 : 2021.9.2 ~ 2026.9.1	○ 판정결과 · 한국 : US\$0.27 / Kg · 미국 : US\$0.27 / Kg
3	73041901,73041902, 73041999,73043910, 73043911,73043912, 73043913,73043999	무계목강관(Seamless Steel Pipe)	반덤핑(규제중)	한국, 스페인, 인도, 우크라이나	○ 부과기간 : 2018.4.4 ~ 2023.4.3	○ 판정결과 · 한국 : US\$0.1312 / t · 스페인 : US\$0.3785 / t · 인도 : US\$0.2067 / t · 우크라이나 : US\$0.1701 / t * 일몰재심중 (2023.3.31~)
4	40021901,40021902, 40021903,40021999	합성고무(스타이렌 부타 디엔 고무)(Emulsion Styrene Butadiene Rubber)	반덤핑(규제중)	미국, 한국, 일 본	○ 부과기간 : 2019.1.26 ~ 2024.1.25	○ 판정결과 · 미국 : US\$0.34075 / Kg · 한국 : US\$0.11378 / Kg · 일본 : US\$0.23556 / Kg

수입금지품목

수입금지품목은 포식 어류, 마약, 유해 물질, 반사회 활동을 야기할 수 있는 전자지 등이며 이들 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모두 수입이 가능하다.

규제의 자세한 내용, 관련 절차, 변경사항은 연방관보(DOF)를 통해 공포된다.

- ① 전자 담배
- ② 위조 상품 불법적으로 등록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
- ③ 총기 및 그 부품, 날카로운 무기 및 탄약 군사 장비
- ④ 마약, 마약류 및 불법 마약 물질
- ⑤ 불쾌한 내용의 음란물, 소아 성애적 성격의 제품

(출처: 멕시코 연방관보)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표준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 NOM, Normas Mexicanas; NMX)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는 워낙 다양하고, 변경이 잦으며, 공표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사전 대비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타이어, 전자제품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멕시코의 HSCODE 규정이 바뀌면서 몇몇 제품들은 새롭게 테스트를 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 식약청 검증 절차(COFEPRIS)

- 관련 분야(품목) 및 종류: 기능성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 종류: 수입허가
- 관련 규정: 멕시코 보건법 제376조

멕시코는 기능성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식약청 인증(COFEPRIS)을 받아야 하나,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멕시코 보건부가 발행하는 위생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 제조품의 경우 멕시코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현지 수입판매자)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사가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품목 허가를 받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편 멕시코 보건부는 '20.1.28 관보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공급선을 다각화 하고 독점시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의약품 수입요건을 완화하는 협정문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멕시코의 의약품 규제 수준에 준하는 국가 또는 기관(스위스,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범 미주보건기구, WHO, PIC/S)의 인증을 기 취득하고 멕시코 식약청(COFEPRIS) 산하의 진단 및 처방 감독위원회를 통과한 제품은 별도의 위생등록 절차 없이 수출 가능하게 되었다.

3) 이 외 특정 품목(섬유, 중고차, 농수산물, 방산물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부처의 인증/허가를 득해야 한다.

4) 물류증빙서류(Complemento Carta Porte)

2021년 5월 1일 멕시코 국세청(SAT)은 물류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신규 규제를 발표하였다. 도입의 취지는 멕시코 내 모든 물류의 합법성과 투명함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물류증빙서류에는 해당 물류의 출발지부터 이동 루트, 도착지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반 물류사의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해당 서류와 함께 사례별로 멕시코 전자영수증(CFDI; 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을 함께 발행하여 물류 운반 시 서면 혹은 디지털 버전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멕시코의 전자영수증(CFDI; 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

멕시코 CFDI는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된 디지털 영수증의 개념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구매 건에 대한 내용증빙이다. 구입시기, 금액, 부과 세금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CFDI는 총 6가지 종류가 있으며, 1) 판매(Ingreso) 2) 환불(Egreso) 3) 이동(Traslado) 4) 수령(Recibo) 5) 급여(Nomina) 6) 매출채권(Retencion,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건)으로 구분된다. 전자영수증 발행 시 멕시코 국세청에 등록된 자사의 전자서명이 매번 기입되어야 한다.

(출처: 멕시코 DGN, COFEPRIS 등 인증 기관 홈페이지)

TBT

1) 주류

대외무역일반규칙(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을 적용 중이며, 현재 주류 수입량 제한도 사라졌으나, 새로운 테스트와 제출 필요 서류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국과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2) 견과류

견과류 제품 포장에 영양성분을 표기하며, 과도한 양의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이를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이 표시가 한개 이상 해당될 경우, 만화 캐릭터, 유명인 등으로 홍보할 수 없다.

3)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라벨링 관련 수정조치가 적용('20.10.1.부)되었다. 제품 포장 전면에 소비자에게 건강에 해로운 과도한 성분(칼로리, 나트륨, 트랜스 지방, 설탕 및 포화지방 과다)에 대한 변경된 경고 스탬프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감미료나 카페인 포함된 경우 어린이를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추가해야 하며, 필수 영양소나 감미료가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에 어린이 캐릭터, 만화 등을 제거해야 한다.

4) 상업 및 건강 정보를 표기하는 멕시코 표준인증(NOM)이 적용되는 기타 상품

2020년 10월 1일부터 상업 및 건강 정보를 표기하는 멕시코 표준인증(NOM)이 적용되는 기타 상품들은 비상업적 목적 또는 진실 서한으로 수입할 수 없다. 또한 국경 지대로 수입되는 제품들도 세관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멕시코 세관 관리국

멕시코 관세청(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éxico, ANAM)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édito pblico) 산하의 독립된 조세행정 기구로 전국에 총 49개가 운영 중이다.

2) 통관 시 필요서류

통관에 필요한 기본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송장(Commercial Invoci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수입허가서(수입허가품목인 경우), 기타 관련 증명서(의약품에 대한 보건부의 수입허가서와 같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3) 관세율 체계

멕시코 상품분류는 19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6자리까지는 동일하며, 이후 2자리는 멕시코 관세코드, 마지막 2자리는 제품 세부 분류기준을 나타낸다.

4) 관세종류

멕시코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입관세(Advalorem), DTA(Derecho de Trámite Aduana),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와 같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수입관세: HSCODE에 따라 0~45%까지 부과
- DTA: 세관수수료로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이며, 기본 금액은 2022년 기준 378페소(약 18.9 달러)
- IVA: 부가가치세로 인보이스가격(CIF) + Advalorem + DTA(세관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16%
- * 단, 담배, 주류, 휘발유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세(IEPS)가 붙으며, 품목에 따라 세율(25~160%)이 다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멕시코 경제부에서 관리하는 대외무역국가정보서비스(SNICE; Servicio nacional de información de comercio exterior)에서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https://www.snice.gob.mx/cs/avi/snice/nico.ligie.html>

- * 상품 관세 조회 시 EX로 표시된 국가의 경우 무관세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멕시코의 주요 항구는 콜리마에 위치한 만사니요(Manzanillo)항구, 미초아칸의 라사로 카르데나스 항구, 베라크루즈 코타사코알코스 항구이다. 한국에서 출발한 멕시코행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 서해안의 만사니요 항구를 거쳐 멕시코로 들어온다.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주로 대형 트럭으로 운반되며 멕시코 내륙지역과 북부지역을 거쳐 멕시코와 미국 국경으로 이동한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2022년 기준 멕시코 주요 항구별 물동량은 만사니요(3,154만 톤), 라사로 카르데나스(2,820만 톤), 베라크루즈(2,816만 톤),알타미라이다. 만사니요 항구의 전년 대비 물동량은 4.17% 증가했으며 라사로 카르데나스와 코타사코알코스 항구는 각각 6.19, 6.29% 감소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멕시코의 주요 국제공항은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MEX), 과달라하라의 돈 미겔 이달고 이 코스티야 국제공항(GDL), 케레타로의 케레타로 국제공항(QRO), 키타나 루의 칸쿤 국제공항(CUN) 등을 꼽을 수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2022년 기준 멕시코 주요 공항 물동량은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이 5억 7,081만 톤, 돈 미겔 이달고 이 코스티야 국제공항(과달라하라) 이 1억 7,678만 톤, 케레타로 국제공항(케레타로)이 7,285만 톤이었다. 2022년 기준 공항을 이용한 승객수는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이 4,620만 명, 칸쿤 국제공항이 3,034만 명이었다.

3) 유의사항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현지 법인이 없다면 현지 수입업체와 협력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멕시코 수입업체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멕시코에서는 재무부로부터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Comercializadora'라고 불리는 수출입 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을 진행하는 업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거래 시, 추후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 업체라 하더라도 허가증에 수입 취급 가능 품목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등록 업체가 현재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멕시코로 유입되는 한국상품 중 화장품 품목 통관 관련 이슈가 많다. 한국에서 보낸 소량의 샘플 제품에 관세 및 별도의 인증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별도의 서류없이 소량이라는 명목 하에 제품을 배송할 경우, 반송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 기타 참고사항

멕시코는 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가 복잡하며, 스페인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내용이 일부 누락 또는 잘못 작성된 경우 통관을 오랜 시간 보류하는 사례가 잦다.

특히 첫 수출 시 통관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창고료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품 선적 시 제품 수량 등 정확한 정보를 C/I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멕시코 관세법에서는 수입을 크게 최종수입(Importacion definitiva)과 임시수입(Importacion temporal)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대 상에 따라 통관절차 및 관세 부여 내용이 달라진다.

1) 최종수입(Importacion definitiva)

연방 관세법(Ley Aduanera) 96조 및 101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물품이 적용되며 멕시코 내에서 판매되거나, 멕시코에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의 수입에도 해당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① 관세사 선정, ② 수입신고서 등 서류 작성, ③ 관련 세금 납부, ④ 세관의 서류 검토, ⑤ 화물검사 여부 결정, ⑥ 화물 검사 그리고 ⑦ 화물 인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세사를 통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

2) 임시수입(Importacion temporal)

임시수입 물품은 판매를 위한 제품이 아니므로 관세 및 수입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보복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관세법 제104조에 의한 의무는 부과된다. 관세법에 명시된 일시적 수입은 특수한 목적 때문에 들어왔다가 일정 기간 내에 원형 그대로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와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이나 경제부의 수출장려프로그램에 따라 제조, 가공, 수리 과정을 거친 후 재수출하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 원형 그대로 수출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 전시나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멕시코에 수입되는 물품들로서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에서 정한 날짜(통상 6개월 이내) 안에 형질의 변경 없이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을 멕시코로 가져온 당사자는 관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입국 시 직접 관할 세관에 통관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통관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최대 물품가격의 2배)을 세관당국에 지불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은 세관에 압류당하게 될 수 있다.

- 마킬라도라, 수출장려프로그램에 따른 재수출용 수입의 경우: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 산업진흥 프로그램(IMMEX)은 멕시코정부가 수출용 상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임시 수입을 허용해 부가세 및 관세의 납부 연기 그리고 고정자산 수입 시 부가세 납부 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은 수출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산업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서 0~7%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동 프로그램들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가공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IMMEX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등에 대하여는 일반 수입 관세와 통관수수료가 부과되나, 해당 기계나 장비가 FTA 체결국 제품인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마킬라도라 업체(보세임가공업체)가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최종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멕시코세관 통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관세법 제56조). 그러나 PROSEC 프로그램 등록업체의 경우 0~7% 정도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할 수 있다. IMMEX에서 부가세 납부가 연기되는 기간은 원자재와 부품의 경우 최대 18개월이며, 기계와 장비의 경우 IMMEX 프로그램 유효기간까지이다.

통관 시 유의사항

멕시코의 물품 수입 절차는 크게 1) 수입신고 전, 2)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3) 서류 심사, 4) 물품 검사 및 반출의 네 단계로 나뉘는데, 단계별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한다.

1) 수입신고 전

(관세사 지정) 멕시코의 경우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필수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지에서 직접 수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공인된 관세사와 업무계약이 필요하다.

-지정된 통관 관세사를 재무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수입업체는 수입업무가 금지됨

-미수방지, 무자격 수입업체 정비, 복잡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활용 용이성 차원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제도를 악용하여 과도한 통관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통관 관세사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의 명목으로 선금을 지불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통관 관세사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안전함

(상업송장 작성 시 물품 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상업송장 발행일자, 수출자 및 수입자명,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지, 물품의 정확한 명세(수량 및 중량, 단가, 송장 금액, 제품 모델명, 시리얼 넘버 등)가 실제 물품 정보와 일치해야하며, 추가적으로 송장번호, 거래조건, 통화종

류, 물품의 총중량, 물품의 원산지, 총 포장 개수 등도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상업송장에 스페인어 외 언어로 내용이 기술된 경우에는 스페인어 번역본을 첨부해야한다.

(선하증권에 CIF 여부 표기) CIF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선하증권 상에 반드시 명시되어야한다. 관행적으로 FOB라고 표기된 경우, CIF 가격임에도 멕시코 세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2)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지정된 통관 관세사는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납부)멕시코의 경우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관세의 납부는 수입물품 검사 이전에 이루어진다. 관세사가 적용 관세와 기타 세금을 계산하며, 입항지에 위치한 상업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서류심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세관의 서류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서류상의 원산지 표시 유무(관세 면제 품목인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가신고(Under Value)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멕시코 세관의 '수입물품 가격 데이터'를 통해 가격 변동 유무 확인해야 하고, 인증 및 수입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구비해야된다.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작성된 경우 통관을 오랜 시간 보류하는 경향이 있다.

4) 물품 검사 및 반출

멕시코 세관은 통관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비리를 줄이기 위해 2단계의 랜덤 통관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물품 검사는 랜덤시스템이며 통관대에 부착된 신호등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검사대상 물품이 선정된다. 녹색등은 검사 생략, 적색등은 검사대상이다. 아시아산 물품의 경우 대부분 검사대상(적색등)으로 지정되며,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물품 압수,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자료: Trade Navi 및 무역관 자료 종합)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PanTrans S.A de C.V

주소	Londres #149, Juarez, C.P. 06600, CDMX, Mexico
전화번호	+52-55-5566-8955
이메일	info@pantrans.com.mx
홈페이지	https://www.pantrans.com.mx/
비고	운송회사 *현재 홈페이지 개편중

◦ Pantos Logistics Mexico S.A de C.V.

주소	Torre VAO2, Piso11, David Alfaro Siqueiros 104, Col. Valle Oriente, San Pedro Garza Garcia, 66269, Monterrey, N.L.
----	--

전화번호	+52 (81) 5515-3104
이메일	yonghoon.lim@lx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lxpantos.com/kr/main.do?lang=kr
비고	운송회사

◦ CJ 대한통운

주소	Manufactura #502, Parque Industrial Queretaro. CP. 76220. Santa Rosa Jauregui, Queretaro
전화번호	+52 442 240 9316
이메일	info@cjlogisticsamerica.com
홈페이지	https://www.cjlogistics.com/ko/network/en-mx
비고	운송회사

◦ Sistemas kinedyne S.A de C.V.

주소	Calzada de las Armas #130-A, Las Armadas (Zona Ind), 54080, Ciudad de Mexico, Mex
전화번호	+52-55-5318-4844
이메일	sistemas@kinedyne.com.mx
홈페이지	http://www.kinedyne.com.mx
비고	운송회사

◦ Grupo TMM, S.A de C.V.

주소	Av. de la Cúspide #4755, Col. Parque del Pedregal, C.P. 14010 CDMX
전화번호	+52-55-5629-8866
이메일	ld-puertosterminales@tmm.com.mx
홈페이지	http://www.tmm.com.mx/
비고	운송회사

◦ Tum transportistas unidos mexicanos S.A de C.V.

주소	Eucalipto #2, Fraccionamiento Industrial Tabla Honda, C.P. 54126 Tlalnepantla, Edo. de México
전화번호	+52-55-5039-0600

이메일	info@tum.com.mx
홈페이지	http://www.tum.com.mx/iniciotum.html
비고	운송회사 http://www.tum.com.mx/iniciotum.html (해외전용 URL, 국내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Agencia naviera de México, S.A de C.V.

주소	Periferico Sur #3449 2do piso. San Jerónimo Lidice. México, CDMX 10200
전화번호	+52-55-5595-0073
이메일	agnamex@agnamex.com.mx
홈페이지	http://www.agnamex.com.mx/
비고	운송회사

◦ Transportadora Nacional S.A. de C.V.

주소	Calle 3a. sur #40, Col. Independencia, C.P 54914, Estado de Mexico
전화번호	+52-55-5899-8200
이메일	comercial@tnaglobal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s://www.tnagloballogistics.com/
비고	운송회사

◦ Savino del Bene Mexico S.A. de C.V.

주소	Insurgentes Sur #800 Piso 15 local 1 & 11, Col. Del Valle C.P. 03100, CDMX
전화번호	+52-55-5286-3018
이메일	N/A
홈페이지	https://www.savinodelbene.com/
비고	운송회사

◦ Agencia Aduanal de América

주소	Poniente 150 #688, Industrial Vallejo, C.P.02300, México, CDMX
전화번호	+52-55-8503-3200
이메일	rnavarro@aaamerica.com.mx

홈페이지	https://www.aaamerica.com.mx/
비고	통관서비스 회사

○ Ravisa México S.C.

주소	Varsovia #22, Col. Juárez, C.P. 06600, México, CDMX
전화번호	+52-55-8854-7172
이메일	jnavarrete@ravisacom.com
홈페이지	http://www.ravisacom.com/
비고	통관서비스 회사

○ Transterre

주소	Sacramento #305, Insurgentes, C.P. 03630, México, CDMX
전화번호	+52-55-5687-3444
이메일	aguerrero@robertougarte.com
홈페이지	https://transterrelogistics.com/#home
비고	통관서비스 회사

○ Xcell Logistics

주소	Av. Insurgentes Sur 826-5th, floor. Del Valle, Benito Juárez, 03100 Ciudad de México, CDMX
전화번호	+52- 55-5785-1950
이메일	insidesales@xcell-logistic.com
홈페이지	https://xcell-logistic.com/
비고	통관서비스 회사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멕시코 투자 관련 법령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 후 멕시코 정부는 1999년 12월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n Extranjera)을 제정했으며, 1999년 1월 16일, 2001년 6월 4일, 2007년 7월 18일, 2008년 8월 20일에 일부 개정됐다. 한편, 1998년 9월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de Inversin Extranjera)을 통해 법인설립 신청요건, 투자 위원회 활동, 등록 절차 등 투자 관련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1961년 12월 제정된 외국인관리법을 1999년 4월 외국인거래법으로 개정했으며 동 법의 목적은 외국인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투자법 개정을 통해 헌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즉,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멕시코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고정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 시작, 신제품 생산, 시설물의 운영, 기존 시설 확장 이전 등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법인이 멕시코 내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당사자인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며 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아울러 경제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17-A조).

- 외국법인은 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임을 증명해야 한다.
- 회사정관과 기타 법인의 설립관련문서는 멕시코 법령에 명시된 공공질서 규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외국법인이 현지법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해 부과되는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주요 내용

2000년 11월 14일에 서명된 '한-멕시코 투자보장 협정'은 2002년 6월 28일에 발효됐다. 동 협정은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대국 투자자 및 투자기업에 내국민,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상대국 투자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며, 상대국 투자와 수익의 자유송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투자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경제동맹, 지역경제통합협정에 따라 체결국 간 부여되는 대우나 특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의 종류로는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동산, 부동산 등 물권적 재산권, 회사 또는 기업의 지분, 주식 및 기타 모은 형태의 참여와 이에 따른 권리와 이익, 금전청구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사업양허 등이 포함된다.

투자인센티브

멕시코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제공되는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멕시코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기도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각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비 지원, 고용주세 감면,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산세 등록 비용, 토지 이용세, 건축인허가 비용, 각종 인지대 감면 등이며 금융지원, 현금 보조금 형태의 인센티브는 매우 적거나 없다.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는 최대 제공 가능 범위에 대한 지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투자건 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건건이 인센티브를 협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교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신규 고용 창출 규모이며, 투자규모, 업종, 투자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 중앙정부 인센티브

멕시코 연방정부에서 산업은행(NAFIN)과 국영대외무역은행(Bancomext)의 신탁펀드를 통해 특별특혜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용자금은 직접 또는 일반 상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며, 산업은행(Nafinsa)도 해외은행과의 공동투자를 통한 신탁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산업은행(Nafinsa)의 기업대출 중 약 80%는 중소기업 대출이며 멕시코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안정, 생산력 증대, 지역개발, 국가기술 수준 향상 및 수출을 통한 외화소득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또한 Rule 8(Regla Octava) 제도를 운영하여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물품/원자재 등의 수입관세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경제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지방정부 인센티브

각 지방정부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개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는 교육훈련비 지원, 사회보장세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투자건별로 해당 지방정부와 인센티브 수혜범위를 협상, 확인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 성격, 심지어 정부 담당자에 따라 제공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문의 시, 문의기업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으며, 소규모 투자진출 시에는 제공하는 인센티브 혜택이 크지 않다. 이에 더해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출서류가 많고 소요기간이 길어 투자 타당성 검토 시,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투자 인센티브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수출 인센티브가 매력적일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진출할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과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 수출기업 수입세 환불 프로그램(Draw Back), Rule8(Regla Octava) 등이 있다.

○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

제조 마킬라도라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출상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재화를 임시로 수입할 때는 일반 수입세(IGI), 부가가치세(IVA) 납부의 연기를, 고정자산 수입 시에는 부가세 납부의 연기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상품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

산업부문별 진흥프로그램(PROSEC)은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0~7%의 증가(ad valorem)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동 프로그램은 IMMEX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수입해 완성품을 생산한 후 수출이나 멕시코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다.

○ 그 외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남쪽국경 자유무역지대, 첷투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에서 소득세 20%와 부가가치세 8% 징수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1) 국가 독점 분야(외국인 투자법 5조)

- 기초 석유화학제품
- 전기
- 원자력 발전
- 방사선 광물
- 전신
- 무선 전신
- 우편 업무
- 화폐 발행 및 동전 주조
-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
- 기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 규정 사업

2)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이 독점하는 분야(외국인 투자법 6조)

- 택배나 소포 선적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승객, 관광객, 화물 지상운송
- 개발 금융 기관
- 관련법 조항에 명시된 전문 기술 사업

3) 특별 규정에 규제되는 사업(외국인 투자법 7조)

- 최대 10% 지분의 사업: 합작 회사(협동생산회사)
- 최대 49% 지분의 사업
 - * 보험회사, 채권회사, 외환거래회사, 보세창고, 증권거래법 12항에 해당되는 회사, 상호기금 고정자본 출자, 상호 기금 경영, 퇴직연금 운용회사
 - * 폭발 혼합물 및 산업용으로 폭발물을 구매할 경우를 제외한 폭발물 제조 및 유통, 총 기류 및 총환, 탄약 등의 제조 판매(산업 및 발파용 폭발물의 취득 및 이용, 상기 활동을 위한 폭발혼합물의 제작 제외), 국내 유통 신문 인쇄 및 발행, 농지, 축산지 혹은 임업지를 소유한 회사의 T 계열 주식, 경제 제한 구역 및 연안 지역에서 양식업을 제외한 어업활동, 항구 통합 관리, 관련법에 따른 내륙 항해 선박에 대한 항만 도선서비스, 내륙 및 연안 항해 선박의 상업적 이용을 목적하는 선박회사(관광크루즈, 항만의 건설, 보소, 운영을 위한 준설선 및 이용시설 제외) 선박, 비행기, 철도의 연료나 운할유 공급, 연방통신법 11조와 12조에 의한 회사, 항공 서비스

4) 멕시코 투자위원회 승인 하에 49% 이상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외국인 투자법 8조)

- 선박 국내 운항 예항 정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 원양어업 선박만 운영하는 해운회사
- 공용 비행장 피면허자
- 교육부문의 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그 이상의 복합 교육기관
- 법률 서비스
- 대중 철도 교통 부설 운영 및 공공 철도 운송 서비스

한편, 49% 이상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멕시코 기업의 고정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20,184,671,346.26페소)을 넘을 경우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위원회가 결정해 고지한다.(외국인 투자법 제9조에 의거)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멕시코는 크게 4개의 주요 산업별 거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거점은 중앙지역으로,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단독으로 국가 GDP의 15.8%, 인근의 멕시코주는 9.1%를 차지하며 국내 전체 생산량의 1/4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거점은 생산수준이 높은 중부지역 주(할리스코, 과나후아토, 푸에블라, 케레타로)로 구성, 이들이 총 생산량의 약 15.4%를 차지한다. 세 번째 거점은 누에보레온을 포함한 북부 지역(바하 칼리포르니아, 소노라, 치와와, 코아우일라,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로, 총 GDP의 22%를 차지한다. 마지막 네 번째 거점은 원유 생산 지역인 캄페체와 타바스코로 국내 GDP의 8.9%를 차지한다. 이외에 키타나로오,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 콜리마, 나아릿은 관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치아파스, 케레로, 와하카, 트락스칼라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프로그램은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2020년까지 유효했지만, 북쪽 국경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법령의 유효성을 2024 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바하칼리포르니아, 치와와,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 등의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43개 지역이 해당한다.

주요 혜택은 부가가치세(VAT)를 16%에서 8%로 줄이고, 소득세 (ISR)를 30%에서 20%로 인하하며, 가솔린에 대한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세(IEPS)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이 지역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시 최저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해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 남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빈곤한 남쪽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 경제적 지표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치아파스, 타바스코, 캄페체를 포함한 22개 지역에 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와 동일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 체뚜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체뚜말(Chetumal) 자유무역지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16%에서 8%로, 소득세를 30%에서 20%로 감면하는 것 외에도 일반 수입세 및 세관 절차법을 면제하고 있다.

산업단지

◦ EL NACIONAL INDUSTRIAL PARK

규모	145.8 Acres
위치	Carretera Monterrey- Nuevo Laredo Km.23.3 Cienega de Flores, N.L.
임차료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2022년 기준 몬테레이 시의 평균 부지가격은 70~250 USD/m ²
관할기관 및 연락처	◦ 홈페이지: https://www.invest.mexicoindustry.com/parks/en/mexico/nuevo-leon/cienega-de-flores/el-nacional-industrial-park-1 ◦ Tel: +52-81-8364-6569
비고	2023년 4월 기준 총 11개 기업 입주중(자동차 6개사, 산업서비스 3개사 등)

◦ FINSA Queretaro

규모	73 hectares
위치	San Luis Potosi - Queretaro Highway Km 23, Santa Rosa Jauregui 76220, Qro
임차료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2022년 기준 산 루이스 포토시 시의 평균 부지가격은 45~70 USD/m ²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https://www.finsa.net/properties.html ○ Tel: +52 -44-2221-5122 ○ 이메일: info@finsa.net

○ Parque Industrial Tecnológico II

규모	44.5 acre
위치	Avenida Prolongacion Colon Sur No. 6013, Santa Maria Tequepexpan, Tlaquepaque, Jalisco, Mexico
임차료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2022년 기준 할리스코 주 과달라하라 시의 평균 부지가격은 55~310 USD/m ²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https://www.hines.com/properties/parque-industrial-tecnologico-ii-tlaquepaque-jalisco ○ Tel: +52-55-5242- 8809

○ BENITO JUAREZ INDUSTRIAL PARK

규모	450 HAS
위치	Carretera Federal 57 Mexico-Queretaro km. 229 Ave. 5 de Febrero, Queretaro, Qro.
임차료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2022년 기준 케레타로 시의 평균 부지가격은 75~155 USD/m ²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https://www.invest.mexicoindustry.com/parks/en/mexico/queretaro/queretaro/benito-juarez-industrial-park-1 ○ Tel: +52-44-2221-5049 ○ 이메일: asoc.empr.pibj@prodigy.net.mx
비고	2023년 4월 기준 총 98개 기업 입주중(제조업 14개사, 산업서비스 11개사, 금속기계 5개사, 화학 5개사 등)

○ Parque Industrial Centro Logístico Jalisco

규모	1150ha
위치	Carretera Libre Acatlan de Juarez a Ciudad Guzman Km 11, Acatlan de Juarez, Jalisco
임차료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2022년 기준 할리스코 주 과달라하라 시의 평균 부지가격은 55~310 USD/m ²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www.clj.mx ○ Tel: +52-33-3615-6498 ○ 이메일: info@clj.mx
-------------------	--

○ Airport Technology Park

규모	100ha
위치	Av. Del Parque 2105, Airport Technology Park, 66655 Pesquería, N.L.
임차료	-투자규모, 시기,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으로 직접 연락 요망 -2022년 기준 몬테레이 시의 평균 부지가격은 70~250 USD/m ²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http://vynmsa.com/home/industrialParks ○ Tel: +52-81-8356-7978

〈자료원 : 멕시코 산업(Mexico Industry), 멕시코 산업단지협회(AMPIP), 멕시코 산업당지(FINSA)〉

주요 지역별 여건

○ 멕시코시티(CDMX)

멕시코시티는 멕시코의 수도이며 멕시코 협곡 2240m에 자리 잡고 있다. 멕시코시티는 메트로폴리탄 지역(Zona Metropolitana)으로 불리는 주변 위성도시와 더불어 멕시코에서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수도를 포함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도시 규모를 자랑하며 라틴아메리카 문화권 최대 도시이다.

-면적: 1,494.3km² (멕시코 전체 면적 0.1%)

-인구: 9,209,944명 (멕시코 전체 인구 7.3%)

-GDP: 3,127,840 백만 달러 (멕시코 전체 GDP의 17.7%)

-실업률: 7.2%

-기후: 온화하나 일교차가 큰 편 (연평균 16-18°C, 여름 최고기온 30°C, 겨울 최저기온 0°C)

-산업구성: 1차 0.1%, 2차 10.3%, 3차 89.6%, 멕시코시티의 총소득 기준 주요 산업은 금융보험업(28%), 소매업(23.1%), 기업관리(9.65%), 도매업(7.88%) 순

-교통: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AICM) 및 신공항인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AIFA) 위치

- 2017년부터 아에로멕시코 항공사에서 한국으로의 직항도 운항해 왔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노선 변경, 유가상승 등에 따라 잠정 중단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의 대중교통부터 우버, 디디 등 공유택시까지 교통편이 다양

-교육:

-멕시코시티는 멕시코 내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일반적으로 중, 고등학교까지는 수학한 사람이 많음

-국립학교: 중남미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학교 중 하나인 멕시코 국립 자치대학교(UNAM)을 비롯해 메트로폴리탄 자치 대학(UAM), 국립공과대학(IPN) 등

-사립학교: 이베로 아메리카나 대학(Universidad Iberoamericana), 멕시코자치공과대학(ITAM), Colegio de México(Colmex) 등

-치안: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전국 범죄 발생건수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시티는 전국 32개 주 중 1위로, 연간 22만 여건의 범죄 발생

○ 누에보 레온(Nuevo Leon)

멕시코 북부에 위치한 누에보 레온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로서 주요 멕시코 대기업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어 '멕시코의 산업 수도'로 불린다. 주도인 몬테레이는 멕시코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로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와 더불어 대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총 51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도인 몬테레이를 중심으로 그 주변 위성도시지역(Zona metropolitana)가 형성되어 있다. 그 중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산 페드로 가르사 가르시아(San Pedro Garza Garca), 시우다드 아포다카(Ciudad Apodaca), 산 니콜라스 데 로스 가르사(San Nicolas de los Garza) 등이다. 멕시코에서 가장 미국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적: 64,156.2 km² (멕시코 전체 면적의 3.3%)

-인구: 5,784,442명 (멕시코 전체 인구의 4.6%)

-GDP: 1,353,875 백만 페소 (멕시코 전체 GDP의 7.8%)

-주도: 몬테레이 (Monterrey)

-실업률: 4.4%

-기후: 건조한 기후로 5월~10월이 우기

-산업구성: 1차 0.6%, 2차 37.5%, 3차 61.9%, 총 소특별 누에보레온의 산업 비중은 제조업(47.2%)이 가장 높으며, 소매업(13.5%), 도매업(11.8%), 금융보험업(8.37%) 순

-교통:

-몬테레이 국제공항은 멕시코 최대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 및 거대 물류회사(DHL, FedEx, UPS, Estageta 등)들의 거점 공항 중 하나로 여객 및 물류 모두 활발

-항공편 뿐만 아니라 육로로도 미국으로 이동이 용이, 베르나르도 레예스 대교등을 통해 매일 12,000여 대의 트럭이 멕-미 국경 통과

-교육:

-멕시코시티와 함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30%가 학생이며 그 중 13%가 대학생

-국립대: 멕시코 내 명문 대학 중 하나인 누에보레온 주 자치대학교(UANL) 본교 소재

-사립학교: 몬테레이 대학(Universidad de Monterrey), 몬테레이공과대학(Tec de Monterrey) 등의 본교 소재

-누에보레온 주에서는 특히 정부-사기업-교육 기관 협력을 통한 인적 자원 수준 제고 노력

-치안: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전국 범죄 발생건수 통계에 따르면 누에보레온 주는 전국 32개 주 중 6위로, 연간 9만여건의 범죄 발생

o 바하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의 주도는 멕시코칼리(Mexicali)지만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티후아나(Tijuana)로 이는 티후아나가 미국과 24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들이나 노동력의 수요가 많아 일자리가 주도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 국경을 건너면 미 샌디에이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5천만 명 가량이 이 국경을 통해 이동하고 비즈니스를 해왔다.

또한,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멕시코 중부와와의 연결 또한 쉬워지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물품들이 이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아울러 낮은 임금으로 많은 미국 회사들이 국경을 건너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멕시칼리는 멕시코에서 13번째로 큰 제조 산업 도시로, 백만 명 중 약 6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이다. 항공우주&방위(A&D), 의료기기 및 부품 및 전자, 전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동쪽으로는 캘리포니아 만,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접해있어 수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바다를 끼고 있어 해양 관련 관광업도 발달해있다.

-면적: 71,450 km² (멕시코 전체 면적 0.1%)

-인구: 3,769,020명 (멕시코 국토 면적의 3.6%)

-GDP: 565,895 백만 페소 (멕시코 전체 GDP의 1.8%)

-주도: 메히칼리 (Mexicali, 가장 큰 도시는 티후아나(Tijuana))

-실업률: 2.4%

-산업구성: 1차 2.8%, 2차 41.7%, 3차 55.5%

-교통:

-미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국경 내 7개의 전략지점 마련, 이중 일일 트레일러 2,500대 수용 가능한 화물차량 이동 구역이 3개이며, 도로로 국경이동 가능한 익스프레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수자원(콜로라도강), 에너지(산업용 24시 사용 전력 MW당 평균가 118달러, 천연가스 터미널 보유), 항구, 공항, 100개 이상의 산업 단지 및 산업구역 등이 마련되어 있는 등 뛰어난 인프라

-교육:

-주정부 예산의 약 60%가 교육환경에 투자되어 교육 수준이 높고 경쟁력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양산

-대학교 92개, 학생 12만 7천 명 이상, 공대생 3만 명 이상

-약 15만 명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산업-비즈니스 분야 발전에 적합한 법학, 산업공학, 기업관리, 경영무역, 전자전기 공학 등

-치안: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전국 범죄 발생건수 통계에 따르면 바하칼리포르니아 주는 전국 32개 주 중 5위로, 연간 10만여 건의 범죄 발생

o 할리스코(Jalisco)

할리스코 주는 멕시코주와 멕시코시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다. 과달라하라(Guadalajara), 사포판(Zapopan) 등의 대도시를 포함한 과달라하라 메트로폴리탄 구역을 비롯하여 푸에르토바야르타 메트로폴리탄 구역, 오키틀란 메트로폴리탄 구역, 남부 메트로폴리탄 구역, 아우틀란 메트로폴리탄 구역 등 5개의 메트로폴리탄 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중앙고원 지대에 위치하여 건조한 기후부터 아열대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여름에는 덥고 비가 와 습한 편이다. 인근 지역에서 채소와 과일 재배가 많고, 맥주, 아보카도와 함께 멕시코의 주요 수출 품목인 테킬라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또한, 멕시코의 실리콘 벨리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기술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로, 개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했으며 많은 대기업이 과달라하라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 78,595.5 km² (멕시코 전체 면적의 4%)

-인구: 8,348,151명 (멕시코 전체 인구의 6.6%)

-GDP: 1,207,897 백만 페소 (멕시코 전체 GDP 6.9%)

-주도: 과달라하라 (Guadalajara)

-실업률: 4.7%

-산업구성: 1차 5.7%, 2차 32%, 3차 62.4%

-교통:

-항공 인프라: 미겔 이달고 이 코스티야 국제공항 및 구스타보 디아스 오르다스 국제공항 위치, 국내선 도착기준 멕시코 3위(연 41,161회, 전국 국내선 도착(8.62%), 국제선 도착기준 멕시코 3위(연 26,953회, 전국 14.34%))

-할리스코 내 도로망은 길이가 총 6,616km에 달하며, 2,196km는 연방 도로, 599km는 유료 고속도로

-푸에르토 바야르타 항구가 있으나 화물 운송이 아닌 관광(크루즈 정박 등) 용도로 이용

-철도의 경우 화물운반 철도가 1,147km로 멕시코시티, 콜리마, 만사니요, 멕시코 북부와 연결

-교육:

-국공립·민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약 11,280여 개로, 이 중 사립학교는 약 2,185개

-대학기관은 약 180여개로, 2020년 기준 등록학생 수가 총 294천 명에 달하며, 이중 엔지니어링, 제조, 건축 분야가 약 45,600명이고 회계, 경영, 관리, 마케팅 등의 비즈니스 계열이 약 69,700명으로 총 등록 학생의 40%

-치안: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전국 범죄 발생건수 통계에 따르면 할리스코주에는 전국 32개 주 중 4번째로 연간 13만건의 범죄 발생

○ 케레타로(Querétaro)

멕시코의 중심부에 위치한 주로 걸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파누코 (Panuco) 강과 차팔라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레르마-산티아고 (Lerma-santiago) 강이 있다. 날씨는 전반적으로 온화하며 습한 지역도 있고 건조한 지역도 있으나 농사를 짓기에 좋은 기후이다.

-면적: 11,690.6 km²(멕시코 전체 면적의 0.6%)

-인구: 2,368,467 명(멕시코 전체 인구의 1.9%)

-GDP: 38,439 백만 달러(멕시코 전체 GDP의 2.3%)

-주도: 산티아고 데 케레타로(Santiago de Querétaro)

-실업률: 5.7%

-산업구성: 1차 2.4%, 2차 42%, 3차 55.6%,

-기후: 최고 기온 35도 이내, 겨울에도 -1~ 5도

-교통:

-멕시코의 중심부에 위치해 멕시코시티 및 다른 주와의 연결성이 좋아 국가 물류 및 운송 분야에 있어 중요한 도시

-케레타로 국제공항은 국내 전 지역 및 미국까지 직항 연결(여객 및 화물)

-512km에 이르는 철도와 940km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미국 남부까지 이어지고 있어 물류 운송이 쉽고 빠름

-교육:

-100개 이상의 교육센터, 기술대학 13개, 기술고등학교 약 30여개가 위치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생산하며 특히 자동차대학, 항공대학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

-케레타로 자치대학(UAQ), 케레타로 공과대학(UTEQ), 케레타로 기술원(ITQ) 등의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약 70여개의 대학기관에서 약 99,000명이 재학 중

- 케레타로 공대 (공대서열 2위) 내 세종학당 신설(2022.9)

-치안: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전국 범죄 발생건수 통계에 따르면 케레타로주는 전국 32개주 중 11위로 연간 5만여 건의 범죄 발생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북미 위주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며, 멕시코는 가장 주목받은 니어쇼어링 대상지가 되고 있다. 유엔 무역개발위원회(UNCTAD)는 2022년 세계 투자보고서에서 멕시코를 외국인 투자유치국가 10위로 지정하였으며,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기준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FDI 유입이 많은 국가이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022년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3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주요 투자국은 미국(42.6%), 캐나다(10.7%), 아르헨티나(6.6%) 순이며, 한국은 2022년 투자액수 기준 7위, 누적투자액수 기준 19위이다.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34097.2	34567.1	28195.2	31543.5	35291.6

<자료원 : UNCTAD(2018~2022)>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멕시코의 대외 직접투자는 대내 직접투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특히 2021년에는 음수값을 기록하였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8364.65	10639.5	2265.24	-1593.91	12848.8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2023년 5월 기준, 멕시코 경제부에 등록된 한국기업 수는 총 2천여개개사이나 교민기업 및 휴폐업 기업 사후관리 부족 등을 감안하였을 때 멕시코에 실제로 진출해있는 한국기업은 400여개사로 추정된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2년 12월 누적 기준, 한국기업의 멕시코 법인 설립건수는 473건이며, 투자금액은 73억불을 상회한다. 한국기업들이 주로 진출한 지역은 몬테레이, 케레타로, 띠후아나 등이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364	36	616,644	374	601,162
2022	404	40	1,400,028	446	1,372,300
2023	226	42	620,794	258	579,32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한국기업의 멕시코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182	18	308,322	187	300,581
광업	12	0	23,727	6	22,711
제조업	79	12	207,791	90	194,99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2	1	38,323	73	38,93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0	500	1	500
건설업	4	0	2,376	3	1,876
도매 및 소매업	6	2	14,344	5	14,164
운수 및 창고업	3	2	665	3	666
숙박 및 음식점업	3	0	16,594	4	22,737
금융 및 보험업	1	0	4,000	1	4,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1	2	1	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202	20	700,014	223	686,150
광업	13	1	8,098	6	6,541
제조업	96	15	271,504	124	260,83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2	0	39,608	74	40,20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0	800	0	0
건설업	2	0	200	3	700
도매 및 소매업	9	2	354,781	8	352,851
운수 및 창고업	1	0	500	1	500
금융 및 보험업	2	0	21,003	1	2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1	3,000	4	3,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1	520	2	52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113	21	310,397	129	289,660
광업	3	0	1,412	1	704
제조업	95	16	297,008	114	277,72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	0	1,420	5	1,610
건설업	1	0	50	0	0
도매 및 소매업	6	5	2,007	5	1,126
운수 및 창고업	1	0	1,000	1	1,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6,000	1	6,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0	1,500	2	1,5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화승 오토모티브 멕시코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Sealing 제품 및 호스류 제조
모기업명	화승

○ 세아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가전 및 자동차 부품
취급분야	가전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모기업명	(주)세아에프에스
------	-----------

○ 기아자동차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자동차
취급분야	자동차 생산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8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백색가전
취급분야	LCD, PDP, LED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전자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백색가전
취급분야	냉장고, 전기 오븐
모기업명	LG전자

○ 포스코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철강
취급분야	아연도금강판 생산(자동차 및 전자제품용)
모기업명	포스코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멕시코 상법(LGSM)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 총 6가지 법인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가변자본(Capital Variable) 회사로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멕시코 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무부의 회사설립 허가를 받은 후, 정관작성, 재무부 납세자 등록을 거쳐 국가 외국인 투자등록 정보 시스템(SI-RNIE)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멕시코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대우, 즉 내국인 대우가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호투자진흥 및 보장협정(APPRI)을 맺고 있어 직접투자 관련 최혜국대우가 보장된다.

지사

지점은 해외 모기업의 지점을 멕시코 내에 설치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점의 경우 멕시코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점의 법적 책임은 한국 본사에 귀속되므로, 멕시코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소송의 대응책임이 한국 본사에 있다. 따라서 주재국 노동법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소송의 경우, 한국 본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며 모든 법적 대응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 한편, 멕시코 세법에 따르면 멕시코 재무부는 지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본사 모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사 지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멕시코 정부가 한국 본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1996년부터 외국 기업의 지사 설립에 경제부(SE)의 허가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사 설립 관련 준비서류 제출 및 서류 검토는 기존 허가제 때와 동일하게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연락 업무 또는 시장조사 업무 등의 비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연락사무소 설립 전 한국 본사가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인지 입증 및 멕시코 국내법 저촉 여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설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정본만 인정되므로,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한국어 등)로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한 다음,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한국 제품을 수출 시 직접 멕시코에서 수입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소규모 업체에 대한 판매 시 어려움이 있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미 국무부는 멕시코 투자환경 불안요인으로 급격한 규제 변화, 불안정한 시장, 비공식 부문 의존도 과다, 부패 만연, PEMEX(멕시코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언급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계약 이행, 불안정성, 비정규직 및 부패에 대한 불확실성이 멕시코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2021년 3월에 승인되고 2022년 4월에 재활성화된 전력 개혁법을 포함하여 2014년 에너지 개혁을 되돌리려는 최근의 노력으로 인해 전력공사(CFE)의 발전을 우선시하며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는 멕시코에서 사업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멕시코는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법상 투자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어 투자 제한사항은 없다. ○ 단독투자: 멕시코는 북미 시장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영어로 완전히 응대가 가능한 경우가 드물다. 스페인어가 불가능하다면 단독 투자 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 합작투자: 합작 투자는 파트너와 현지 네트워크 형성 등의 유리한 점도 있지만, 경영 전략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갈등 발생 및 조정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전에 기술 제공 및 이전에 대한 이해 차이로 합작 파트너사가 기술을 이전 받게 되며 경쟁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p> <p>3) 분쟁해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 간의 분쟁을 담당하는 멕시코 정부 기관은 경제부의 국제무역법률 자문국(Direccin General de Consultora Jurdica de Comercio Internacional)이다. 경제부 (+52 (55) 5729-9100, https://www.gob.mx/se/, jessica.rivera@economia.gob.mx)를 통해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그 외 투자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보도록 변호사 간 조정을 거친다. 그러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멕시코에 투자하는 해외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주주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1인이 1주 이상 보유한다. 최소설립자본 금액에 대해 제한이 없으나, 관례로 법인설립 시 최소자본금을 5만 페소로 설정하며 설립 시 최소 20%가 납입되어야 한다. 현물 출자의 경우 즉시 출자 전액이 납입되어 2년간 회사가 보유한다. 이 기간에 평가가치가 25% 이상 하락한 경우 출자자가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발기인의 경우 1년 이내에 정관상 기재된 출자금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회사는 수권자본금의 20%에 달할 때까지 매년 이익의 5%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주주는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증자 시 출자우선권을 보유한다.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監事) 등 세 기관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처럼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사원 자격과 기관 자격이 분리된다.

유한책임회사

회사의 출자자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출자한 자본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설립을 위해서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출자자가 필요하며,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무는 없다. 초기자본금은 3,000페소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설립 시 출자금액의 50%가 납부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지분율에 따른 출자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 새로운 출자자의 가입은 정관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분비율 50%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기존 출자자들은 15일 이내에 출자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멕시코 상법은 개인사업자(Persona Fisica con actividad empresarial)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멕시코 재무국(Secretaria de Hacienda y Crédito Pblico)에 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최소 필요 자본은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 멕시코

시민권의 에이전트 혹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 합명회사

협동조합(Sociedad Cooperativa)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활동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다. 회사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협동조합법(Ley de Sociedades Cooperativas)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 자체의 정관과 내규를 통해 규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외국인투자자법(Ley de Inversion Extranjera) 7조 1항에 조합이나 협회 설립 시 외국인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협동조합 경영권에 참여할 수 없다.

합명회사(S. N. C.: Sociedad en Nombre Colectivo)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모든 사원은 회사의 의무 또는 채무를 회사 채권자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그리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무한책임성격으로 인하여 멕시코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CHO and ASOCIADOS

전화번호	52 5552080208
주소	Varsovia #53(Oficina401), Juarez, C.P. 0660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www.choasociados.com/
이메일	cho@choasociado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조우현 변호사 근무

◦ YG Consulting 법률 회계 합동 법인

전화번호	+52-55-5207-8915
주소	Calle Amberes 5, Juarez, C.P. 0660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www.ygconsulting.net/
이메일	ygconsulting@hot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영곤 변호사/공인 회계사 근무

◦ Mundus Apertus Law Firm

전화번호	+52-55-9155-2801
주소	Amberes 38, Office 101, Col. Juarez, C.P. 0660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mundus.modoo.at/
이메일	abelkium@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엄기웅 변호사 근무
--------------	------------

○ FLM Consulting&Network

전화번호	+52-55-2740-0321
주소	Av. Lago Alberto 319, Int. 642, Granada, Miguel Hidalgo, Ciudad de Mexico0, Ciudad de México, México
홈페이지	https://flmex.net/
이메일	cj@flmex.net, sm@flmex.ne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찬중, 남상만 변호사 근무

<자료원 : KOTRA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멕시코는 1982년 12월 외환관리법, 1987년 5월 외환관리보안법에 의해 1990년 초까지 관리변동환율제도, 이중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왔으며, 수출입거래에 대해 관리 환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가 1991년, 멕시코 중앙은행이 환율통제를 해제하고 1994년 말, 금융개혁을 통해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모든 외환거래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로 외환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어졌다. 또한, 해당 조치로 납세 등 일부 법규에 접촉되지 않는 한, 각종 자본거래가 자유로워졌으며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멕시코 환율정책은 멕시코 중앙은행 및 멕시코 재무부 관료로 이루어진 환율위원회(Comision de cambios)에 의해 운영 및 결정된다.

외환 규제

멕시코에서 해외자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994년과 1998년 폐소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외환 이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했으나, 위기 이후 폐소화가 정상화되면서 외환규제는 도입되지 않게 됐다. 외환관리를 맡고 있는 멕시코중앙은행(Banco de México)과 재무부(SHCP)도 개방경제 기조를 취하고 있어 향후 외환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부터 발효된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에서 송금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마약거래 등으로 불법자금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은 돈세탁을 막기 위해 수상한 자금흐름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은행, 신용기관, 환전소 등)은 수상한 자금이 포착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정부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매 분기 별로 1만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의 움직임을 보고해야 하며 회사 내에 불법 자금송금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때 조사대상 화폐는 멕시코의 페소화 및 외화, 여행자수표 및 주조된 금, 은 등이다.

멕시코는 OECD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회원으로, FATF의 기준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금융정보국(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설립해 자금세탁과 테러단체로의 자금흐름을 감시하고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멕시코로 들어오는 해외대출자금에 대해서는 규제는 없다. 반면, 멕시코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해외통화채무 보유한도를 자산금액의 1.83배까지로 허가하고 있는데, 중앙은행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기타 로열티 송금, 수출입 대금지급 규모 등 외환거래 역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송금 시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해외송금 시 법인이 멕시코상업등기소(Registro Pblco de Comercio)에 등록되어 있고 법인 관련 세금을 문제없이 납부했을 경우 과실 송금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송금은 금융당국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은 송금과 관련해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자유송금의 권리를 보장한다. 구체적인 송금 항목으로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 자본이득, 배당금, 이자,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 경상소득, 투자의 매각 또는 투자의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타방계약 당사국 영역에서의 투자와 관련해 근로를 허가받은 일방계약 당사국 국민의 소득,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자금, 손실보상 및 수용에 대한 보상금, 분쟁의 해결에 따른 지급금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협정에 규정된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송금 당일에 시중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국의 법령에 따라 송금이 제한될 수 있다.

- 파산, 지급불능 및 기타 채권자 권리보전을 위한 사법절차
- 주식의 발행, 거래, 처분
- 형법 또는 행정법의 위반
- 사법절차에 따른 판결의 이행 확보

그리고 부칙에서 멕시코에서 국제수지의 심각한 어려움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조치 또는 계획의 이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8페소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38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33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4
비고	<p>최저임금 일당은 북쪽 지역의 경우 312.41 페소, 그 외 지역은 207.44페소(2023년, 일급기준)이다.</p> <p>멕시코에서 채용할 때는 대상의 자격요건과 인원수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수십, 수백 명의 인원을 채용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 인력채용 업체를 활용하거나 코트라 K-MOVE센터에서 운영하는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를 통한 직원모집 또는 위탁모집이 각광받고 있다.</p> <p>한편, 대졸 이상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요 대학 취업담당부서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구인광고의 경우 대도시는 일요일과 월요일 신문에, 지방 중소도시는 토요일과 일요일 신문에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멕시코 채용 포털로는 OCC Mundial(유료서비스) 등이 있다. (한국의 사람인, 잡코리아와 비슷한 포털)</p>				

<자료원 : 멕시코 최저임금위원회/ 멕시코시티 K-MOVE센터>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멕시코 노동법은 법이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37조, 38조)가 없는 한 일시적·임시적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작업의 특성상 일시적인 고용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휴가나 질병으로 기존 근로자를 대신해서 작업하는 경우, 법적으로 특정직업(예술가, 항공기 조종사 등)에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 이후 시간제 근로자, 시험채용 및 수습계약 같은 임시채용, 특정기간 채용 조항을 신설하여 고용주 입장에서 유연한 노동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단, 시험채용(30일~최대 180일) 및 수습계약(90일~최대 180일) 기간에도 사회보장보험 가입, 휴가 연말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 시험채용기간이나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무기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 후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개인 간의 개별근로계약과 회사와 내부 또는 외부 노동조합 간의 단체근로계약으로 구분된다. 단체근로계약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임금은 매년 협상을 통해 갱신되도록 연방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만 고용할 수 있는 Union Shop 제도도 단체계약에 의해 도입될 수 있다. 고용주가 법적 의무사항 또는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쟁의조정위원회가 파업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동 위원회가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근로자는 1일 이내 사업장으로 복귀해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

2021년 4월 24일 아웃소싱(subcontratacin)을 금지하는 연방노동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1) 일반적인 아웃소싱(파견 근로) 계약 금지, 2) 특성이 있는 용역 및 도급 공사 허용, 3) 아웃소싱은 회사(계약자)가 아닌 헤드헌팅 회사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영위하는 동일 노동에 대해 아웃소싱을 통한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기업의 사업 영역이 아닌 청소, 보안, 전문 서비스 등에 관한 아웃소싱은 허용하고 있으나 아웃소싱을 통한 고용 시 연대책임 등의 조항이 추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멕시코는 관행적으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법정근무시간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해져 있다. 일일 휴식시간 30분과 중식 시간

도 작업장을 떠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식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작업장의 경우, 종업원에게 중식 시간에는 작업장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해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 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간의 경우 오전 06:00에서 20:00까지이며 최대 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야간의 경우 20:00에서 06:00까지 최대 7시간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야간 혼합 근무의 경우 약간 시간이 3시간 30분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7시간 30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멕시코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8시간x6일=48시간이나, 관행적으로 주5일 근무).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가

기업의 재량권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선택적 휴일은 부활절 휴일을 포함해서 약 6~7일 정도이다. 법정 공휴일과 선택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간 약 12일 정도의 휴일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법정 공휴일(노동법 제74조) - 2022년 기준

- 1월 1일: 신년
- 2월 7일: 제헌절(2월 5일이지만 앞당겨 시행) / 2월 첫 번째 월요일
- 3월 21일: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 탄생일) / 3월 세 번째 월요일
- 5월 1일: 노동절
- 9월 16일: 독립기념일
- 11월 21일: 혁명 기념일(11월 20일이지만 미뤄서 시행) / 11월 세 번째 월요일
- 12월 25일: 성탄절
- 기타 선거일: 연방과 지방의 선거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보통선거

2) 선택적 공휴일

- 3월 하순~4월 초순: 부활절 주간(매년 변동)
- 5월 10일: 어머니의 날
- 10월 12일: 신대륙 발견일
- 11월 2일: 망자의 날
-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출현 기념일

해고

- 정당한 해고를 위한 적법 절차

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위법행위 내용과 위법행위가 일어난 날짜를 명시해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해고의 사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건경위서(Acta Administrativa)를 작성해 해당 근로자와 증인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노동중재위원회에 해당 근로자의 등록된 최종 주소와 함께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노동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의 해고행위는 유효하지 않으며, 만약 고용주가 상기 절차를 해당 기일 안에 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 화해중재위원회는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주의해야 할 점은 차후에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모함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서 관련 증거들

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멕시코 노동법은 노무재판에서 관련 사실의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에, 노동 화해중재위원회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이 명확한 증거 없이 대립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을 수용한다.

○ 노동분쟁 관련 신규 사법시스템

2020년 11월 18일부터 근로자와 고용자 간 갈등해결 평균 소요시간을 4년에서 최대 8개월로 줄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 사법 시스템 1단계가 캄페체, 치아파스, 두랑고, 멕시코 주, 이달고, 산루이스포토시, 타바스코, 사카테카스 등 8개 주에서 우선 시작됐다. 기존 노동 조정 및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던 노동 분쟁은 사법권으로 이동해 지역 조정센터, 연방·지방 법원에서 관할하며, 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이자 TTP, USMCA 협정 요구사항의 일환으로 시범 도입 시행 중이다.

퇴직금

근로자가 자진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직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과 휴가 보너스(Prima Vacacional), 연말 보너스(Aguinaldo, 법적으로 매년 12월 20일 이전에 지급)를 산출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사유 때문에 해고할 경우 특별한 보상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치 급여에 근무연수 1년당 20일 치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밖에도 자진 사직의 경우와 같이 해고 일자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 및 휴가 보너스, 연말 보너스를 산출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멕시코의 의료보험제도는 IMSS(근로자의료보험제도)와 ISSSTE(공무원연금보험) 같은 사회보장보험제도와 일반의료보험제도로 분류된다. 일반의료보험제도인 Seguro Popular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청(INSABI)에서 소관하고 있다. 또한, 비보험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사회보장부(SSA) 직영의 의료기관을 통한 공적 구제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사회보장보험제도와 연계된 의료기관은 시설과 기술적인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부유층들은 개별적으로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멕시코의 경우 의료서비스는 계층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 중상류층 이상은 ING나 GNP와 같은 일반사설의료보험을 이용, 진료비는 높지만 의료서비스 질이 좋은 사설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중류층은 IMSS와 ISSSTE 등의 사회보장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 외의 하층 국민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격이 저렴한 유사약품이나 복제약을 이용하는 등 약품 구매 이외에는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고용보험

멕시코 노동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 관련 세금 이외에 사회 보장성 납부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급여의 약 40% 수준이다. 그러나 사회 보장성 납부금에 고용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멕시코 사회보험제도의 한 형태로 1943년 최초로 제정되었다. 동 보험은 근로자, 농업 및 신용 협동 조합원 등에게 적용되며 보험료는 총급여와 위험 정도 평가에 따라 총임금의 0.25~15%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또한,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없으며, 출퇴근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도 보험에 적용된다.

국민연금

멕시코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청이 직접 관장하는 IVCМ(invalidez(장애), vejez(노령), cesantia(실직), muerte(사망)과 상업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퇴직저축제도(SAR)로 이루어진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의 경우 소득세는 회계연도의 이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통상 법인의 소득세 계산은 기업 내부의 재무회계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정, 즉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항목을 더하고,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한다. 다음, 동 금액에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세무회계에서는 일부 재무회계의 결산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회계상의 지출과 세법상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지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전 회계연도 이윤율을 토대로 잠정 예납(Pago Provisional)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14조에 의해 전년도 이윤율을 토대로 동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선수금의 개념으로 규정됐다. 멕시코의 경우 연말 세금신고(Declaración Annual) 이전에는 회계연도 1년 전의 이윤율로 산출된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를 근거로 과세한 이후, 연말에 실제 이윤에 따라 납세액을 조정한다. 그러므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계 수를 적용해 소득세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서 상계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ISR(Impuesto sobre la Renta)는 소득 가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세 중 하나이다. 개인의 경우 0~35%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개인 공제 한도는 개인 1년 총수입의 15%로 제한한다. 공제항목은 치과 및 병원 진료비, 학비, 장례비, 의료보험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국세청 승인기관에 납부한 기부금 등이다. 소득세법 152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득세율을 조정하게 되어있어, 2022년 12월 국세청은 최근 고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2023년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 구간에 따라 전년대비 0.55%~12.13% 하향 조정되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IVA(Impuesto sobre el Valor Agregado)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단계별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자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2013년까지 국경 지역은 11%, 나머지는 16%를 적용했으나, 2014년 전국적으로 16%로 일률 적용됐다. 단, 3개의 자유무역지대(북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남쪽국경 자유무역지대 및 체뚜말)에서는 부가세가 16%가 아닌 8%가 적용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특허 의약품 및 인간과 동물성 식품용 및 제품(우유 이외의 음료 제외, 청량 음료용 시럽 또는 농축액, 캐비아, 훈제 연어, 장어, 향료, 마이크로캡슐, 식품 첨가물, 애완동물용 껌 및 가공식품)과 생리대, 탐폰 및 여성의 월경 관리용 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IEPS(Impuesto Especial sobre la Producción y Servicios)는 특정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는 간접세이다. 멕시코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연료 및 건강을 해칠수 있는 식음료 및 담배에 대해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석연료인 가솔린과 디젤의 경우 리터당 5.0~6.5페소의 세금이 부과되며, 비화석연료도 5 페소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당음료 및 물에 희석되는 가당분말과 시럽 등은 리터당 1.5페소의 세금이 부과되며, 100g당 275칼로리 이상의 고칼로리 음식에는 8%, 주류는 도수에 따라 26.5%~53%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담배는 160%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담배는 추가로 갑 당 0.59페소가 부과된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멕시코는 크게 산업재산법과 연방저작권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산업재산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산업디자인법, 영업비밀, 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 원산지 명칭, 상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은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인접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특허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반면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또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멕시코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존속되며,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 등록 3년 후에는 상표 실사용을 증명하도록 되어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100년 동안 보호된다.

멕시코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법 제329조에 따라 특허청에 의해 직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아가 특허청은 특허품이나 상표 위조나 침해 여부에 관한 조사와 단속활동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동법 제354조).

또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산업재산권 침해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권리 소유자가 소송 개시를 요청하는 신청서(산업재산법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함)를 제출해야 한다: 1) 동법 제344조(권리 침해를 즉시 방지하기 위한 준비 수단)에 따른 잠정 조치의 부과 요청 2) 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개시에 중점을 둔 침해 행정 선언 요청(동법 330조의 요구 사항).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위해 멕시코 특허청(IMPI)과 세무청(SAT)이 공동으로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품을 적발하기 위해 "IMPI Observers in Customs"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이는 2022년 대외 무역 일반 규칙의 2.4.10과 산업재산법 144조 XXVIII, 148 및 149에 근거해 진행되었다.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 청산(Liquidacion)

청산이란 회사 등의 법인 조합이 해산에 의해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채권의 회수 및 채무 이행 그리고 자산의 매각을 통해 재산관계를 정리해, 이를 동업자 또는 주주에게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소멸 절차를 말한다. 기업청산은 회사법(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서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해산 사유(회사법 제229조)

-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종료됐을 때
- 정관에 명시된 회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됐을 때
- 모든 동업자(투자자) 또는 주주들이 해산에 동의했을 때
- 주주의 인원이 법에 규정된 최소 인원 이하가 되거나 모든 이익이 단 한 명에게 집중됐을 때
- 자본의 2/3 이상 손실이 일어났을 때
- 해당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관할 법원의 법적/행정 명령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자발적 청산은 동업자 또는 공공투자자 간의 합의로 시작된다. 이 합의는 반드시 공식적인 투자자 혹은 투자자총회를 통해서 명문화되어야 한다. 총회 후 청산인을 지명하고 청산인이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를 대신해 이후의 회사 청산을 총괄한다. 청산인은 1인 또는 그 이상 지명될 수 있으며, 회사의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이 절차를 수행할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첫 번째 청산 관련 총회 이후 한 번의 청산 결의에 대한 총회가 더 개최되어야 하는데, 동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또는 청산 후 잔여재산 배분의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 해산결의안의 공증 및 등기

공증사무소(Notario Publico)나 대서소(Corredura Publica)에서 해산결의안을 공증받고 상업등기소에서 등기한다. 멕시코 회사법에 따라 청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업 청산을 담당할 청산인을 임명한다.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대서소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sat.gob.mx)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 재무부(SHCP)에 해산 신고

국세청에 해산신고를 하고 나면 매월 잠정 신고하던 것을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한다.

③ 청산인의 청산 작업 및 재무제표 작성

청산인은 기업의 동산/부동산 자산처분, 채권징수, 채무변제, 재고물품 처분, 직원 퇴직금 정산, 사회보장원에 납부금 정산, 이익금이 남을 경우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해 이익금 배당 등 기타 청산 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방관보(DOF)에 청산기업의 대차대조표 공고 혹은 경제부 전자공고 시스템을 통해 청산기업의 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를 채권자들과나 그 밖의 관련자들에게 당 회사가 청산 과정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연방관보에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공고 혹은 경제부 전자공고 시스템에 공고한다.

⑤ 주주총회 최종청산 결의안의 공증 및 등기

⑥ 재무부(SHCP)에 기업 자산처분내역 신고

청산인은 연방세법(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한 후에 처분내역을 국세청(SAT)의 납세자 등록부(RFC)에 신고한다. R-2서류와 함께 공증된 자산처분 내역서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재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 일체를 지불한다.

⑦ 재무부(SHCP)에 기업 최종청산 결의안 통지 및 납세자등록 취소

기업청산 통보를 위해 납세자 등록을 했던 재무부(SHCP)에 양식(R-2)과 함께 기업 청산서류를 제출한다. R-2서류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지역 재무부 사무소 위치를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를 마치면, 재무부 관련 절차는 마무리되나 청산 이후라도 청산인은 기업의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경제부(SE)에서 외국인투자 등록 취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작성했던 서류 중 첫 페이지 및 등록 취소 서류 부분을 경제부 외국인투자등록부서에 제출한다. 첫 페이지 및 등록 취소 약식은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에 관해서는 외교부(SRE)의 사사국(Direccion General de Inspeccion Federal Trabajo)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월~금 9:00~18:00 상담 가능하다.

- Tel: 52-55- 3000-2700

○ 청산인(Liquidador)의 권한

멕시코 상업회사일반법 제 242조에서는 청산인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해산 당시 진행 중인 회사활동의 종결
- 회사의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 회사 자산 매각
- 잔여 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각 투자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청산
- 투자자 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기 위한 최종 재무제표 작성, 승인된 최종 재무제표는 상업등기소에 제출
- 청산 최종절차로서 상업등기소에서 정관 등록 취소

○ 세금 관련

법인소득세(ISR) 납부와 관련, 청산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청산인은 회계연도 최종정산 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이 되는 날 17일까지 잠정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SAT)의 납세자등록(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을 취소해야 한다. 회사 차원에서 소득세 납부가 완료된 경우 주주의 투자금 변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배당금도 비과세이다. 청산인은 세금 납부에 공동책임이 있으며, 청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단, 청산인이 모르게 회사에서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회계 자료를 조작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 공동책임에서 면제된다.

○ 노동 관련

청산인은 동 회사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멕시코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중재조정위원회를 거친 후 단체협약과 노동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동 계약의 종료는 더 이상의 사업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정당화된다. 사유로는 연방노동법 제53조의 공사종료, 기간 만료 또는 자본 투자의 종결을 들 수 있으며, 제434조에 따라 합법적인 파산이 선포되고, 당국 및 채권단이 회사의 폐쇄 또는 감원을 결정도 사유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노조에 공식적으로 통지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하며, 회사의 사정상 법에서 규정된 퇴직금을 모두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지불가능 퇴직금을 결정해 지급한다. 만약 노조 측에서 동 협상을 거부할 경우, 노조는 기본급여(Salario)에 복리후생(Prestacion) 및 성과급(Comision)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2) 청산 기타 정보

○ 소요기간: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데 약 6~8개월이 소요된다.

○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 위험 요인

- 청산 종료 전 국세청에서 세무감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청산 신청 전에 회계사가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장부 및 세금 신고 내용을 철저히 사전 검사한 후 청산을 해야 세무 감사를 대비할 수 있다.

□ 파산(Quiebra)

○ 정의

파산(Quiebra)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잔여재산으로 채권자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의 채무의무를 면제해 주는 사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 멕시코 파산시스템에 대한 우려

파산시스템 가동의 근본 목적 중 하나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업종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도 몇 년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복잡한 파산절차를 밟느라 자본이나 인적자원이 생산성 있는 분야로 재배치되지 못한다. 파산 관련법의 약점으로 인해 파산의 절차적, 행정적 비효율성이 높고 실제 채권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

○ 파산관련 법령

멕시코의 파산관련 법령은 2000년부터 파산및지불유예법(Ley de Quiebras y Suspensi&ocute;n de Pagos)에서 파산법(Ley de Concursos Mercantiles)으로 대체됐다. 이전 파산법에서는 주 법원에서 파산관련 우선 사법관할권을 보유했으며, 관련협회의 참여도 인정됐으나, 현재는 연방사법부(Poder Judicial Federal)에 소속된 지방법원(Juzgado de Distrito)에서 담당하며, 관련협회의 참여는 거부됐다.

동 법의 개정은 파산과 관련된 소송의 신속성 확보 및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동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파산 절차에 있어서 기한 및 결과에 대한 확실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
- 법적 소송으로 인한 파산절차 지체 방지
- 법적 소송 관련 사안과 행정, 무역, 재무 관련 사안의 분리
- 2개 국가 이상이 관련된 파산절차에 대한 국제사법공조 강화

동 법은 상업 및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또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는 법적 주체에게 해당되며, 또한 외국기업의 멕시코 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요건

- 상업적 채무자의 존재
- 복수의 채권자(채무자 파산신청 시)
- 채무이행의 총체적 불능 상황
- 만기일이 최소 30일 이상 지체되며 최소한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 불능이거나, 파산신청 기간 동안 전체 채무의 35% 이상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
- 채무자의 보유 유동자산이 없으며, 부채가 자산의 80% 초과할 때

② 관할법원

사법관할권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이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소송의 성격상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동시 관할하는 경우에는 주법원에서 동 사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③ 일반적 절차

기업 파산은 연방법원 소속의 지방법원에 상업경매/파산선고 신청서(La Solicitud de Concurso Mercantil)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동 신청서는 파산을 하려는 기업(채무자) 또는 1명 이상의 채권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신청일 경우 조정과정 없이 바로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임명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며, 채권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동 법원에서 실사관(Visitador)과 조정관(Conciliador)를 임명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하고 동 중재가 실패할 경우에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무서류를 준비해 멕시코사회보험청(IMSS), 거래은행, 재무부(SHCP)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동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그러나 동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정리할 시에는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④ 법정파산전문가

파산법(Ley de Concursos Mercantiles)에서는 파산절차상 상업, 행정, 재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법원에서 임명한다. 동 전문가들은 연방 파산관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동 법에서는 동 전문가들을 활동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실사관(Visitador): 파산선고 이전까지
- 조정관(Conciliador): 조정기간 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조정 임무
- 파산관재인(Sindico):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을 대표해 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 의무이행여부 관리

⑤ 조정단계(Conciliacion)

법정 조정 기간은 법원의 파산선고 판결문이 마지막으로 공고된 날 이후 185일로 규정되어 있다. 단, 조정관 또는 채권의 2/3를 가진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90일 연장 가능하며, 이후 채무자 혹은 90%의 채권을 지닌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90일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조정 기간은 360일을 넘을 수 없다. 동 기간 동안 조정관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합의를 유도한다. 만약 조정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조정관은 파산 선고까지의 절차 및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담당하며 채무자에게 채권 가액인정 신청을 받는다. 동 과정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채권 가액을 승인하고 채권의 등급을 정한 후 채권 변제 순서를 결정한다.

우선변제대상 채권자들이 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이미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을 조정관이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면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채권자들은 조정 결과에 따른 의무를 지니며, 합의가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동 채무이행불능 관련 소송이 종료된다. 그러나 조정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

⑥ 파산선고 후 처리단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조정관을 대체하며, 채무자는 사업 및 자산의 경영권 및 관리권을 상실한다. 파산관재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이 완료되거나 더 이상의 환가 및 배당 가능 자산이 없을 때,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을 때 파산절차는 종료된다.

⑦ 노동 관련

파산은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 제434조에 규정된 근로계약 종결사유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채권 관련사항이다. 이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노동조정중재위원회(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를 통해서 가압류를 통한 임금채권 지급 및 채권단 조정 과정 참여 등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조정 및 파산 선고 후, 처리단계에 참여해 채권의 비율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이를 배당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⑧ 파산관련 소송의 국제화

멕시코 파산법(Ley de Concursos Mercantiles)은 2000년 제정 당시 파산소송의 국제공조를 위해 국제적인 기준에 합치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포함시켰다. 만약 파산관련 소송이 2개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관할권 및 법정대리인의 대표 적격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 파산법에서는 2000년 제정 당시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제정한 국제채무불능관련모델법(Model Law on Transborder Insolvency)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제채무관련 소송은 1차적 또는 2차적으로 멕시코 연방법원에서 관할권을 보유 및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파산관재인이 멕시코 법원에서 법적 행위자격 및 소송자격을 보유하며, 멕시코 내에 주재하는 채무자의 자산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모델법에 규정된 대로, 멕시코 전문가들(실사관, 조정관, 파산관재인)도 또한 외국의 파산관련 법정에서 동일한 법적 자격을 인정받는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멕시코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수혜지이자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을 지녀 북미 시장 겨냥 기업들에게 차기 생산거점으로 각광받는 니어쇼어링 허브이다.

미국의 북미 위주 공급망 재편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적극 활용 가능하다. 2023년은 USMCA 발효 4년 차에 접어들며, 역내 원산지 비율 규정은 점차 강화될 전망인데 멕시코 내 생산 시 북미 생산 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으로 전기차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도 북미 내 생산요건 충족 필요한데,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경우 미국 및 캐나다보다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멕시코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접경하여 운송비 및 운송시간 절감으로 북미시장 진출 이점이 있다. 미국과 약 2000마일의 국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육로운송이 가능해 물류비 절감할 수 있는데, 미국으로 화물운송 시 통상 2-3일 소요되어 통상 15-20일 소요되는 아시아 발 운송 대비 시간도 대폭 절감 가능하다.

다수의 무역협정 및 운송네트워크를 완비 했다는 점도 생산 및 수출 기지로서의 경쟁력이다. 멕시코는 52개국과 14개의 FTA 및 5개의 특혜무역협정 체결로 전세계 GDP 규모 60%이자 13억 인구에 해당하는 소비시장에 대한 관세혜택을 확보하였다. 또한 76개 국제공항, 27,000km의 철도 인프라, 태평양 및 대서양에 10개 이상의 무역항 보유 등을 통해 육로 및 해상운송이 원활하다.

또 한 가지 멕시코가 생산 기지로 각광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 대국이자 청년층 비중이 높아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멕시코 인구는 약 1억 3천만명으로 세계 인구 10위인 인구 대국이다. 2022년 12월 기준 평균연령은 29.3세로 24세 이하 인구가 40%에 달하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9,952만명 중 60.4%인 6,015만명이 경제활동인구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 기준 출산율 1.72명, 인구성장률 0.61%로 향후에도 노동가능인구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정부의 친노동 기준으로 현 정권 집권 전인 2018년도 대비 약 2배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북미 대비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5.93페소(약 1.4달러)로 북미(미국 7.25USD, 캐나다 12.2USD) 대비 약 1/7 수준이다.

시장 규모 면에서, 멕시코는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 양대 시장이다. 자원의존적 경제구조인 타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산업이 발달한 제조업 강국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23년 멕시코 평균 연령은 29.3세로 청년층 비중이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는 81.6%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편인데,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6.9%를,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자산의 7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자산보다 빚이 더 많기 때문에 총 자산을 합산하면 되려 음수의 수치가 나온다. 이는 전세계 평균(상위 10% 가 전체 자산의 76% 차지, 하위 50%의 소유 자산은 전체의 2%)과 비교해서도 빈부격차가 더 심한 수준이다.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나누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저소득층이 20%, 고소득층은 9%이다.

<자료원 :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소비 성향

최근 인플레이션과 팬데믹, 기술혁신 등 다양한 사회변화 가운데, 멕시코의 소비시장은 소비양극화, 디지털 전환, 건강과 웰빙, 그리고 사회적 소비라는 트렌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첫째, 사치품은 가격이 더 올라도 구매하는(트레이딩 업) 반면 식자재 등 생활필수품은 되도록 싼 제품을 선택(트레이딩 다운)하는 양극단의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소비자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노브랜드 나 자체 브랜드 등 저가 제품을 선호하거나 아예 구매하지 않기도 한다. 한편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편이나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높은 편으로 중산층들도 사치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팬데믹 기간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며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활용하는 옴니채널화가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온라인 판매 협회(AMVO)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은 6,300만명으로 2018년 대비 170% 증가하였다.

셋째,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EY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5%가 건강 관련 소비를 우선시 하기 위해 다른 소비를 줄일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유로모니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1%의 소비자들이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이상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67%는 식품 및 음료에서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영양성분에 관심을 보이는 멕시코 소비자의 비중(67%)은 글로벌 평균인 56%와 대비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구매 시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적 소비가 늘고 있다. 유기농 제품, 친환경 패키징, 공정무역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마트와 홈디포 같은 매장에서도 친환경 및 공정무역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 소비재의 가장 큰 구매 시즌은 크리스마스 전후의 연말 시즌이다. 해당 시기에는 기업들도 거래처와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다. 그 외에 동방박사의 날(1월 6일)이 어린이용 선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어머니날(5월 10일), 아버지날(6월 셋째 주 일요일), 어린이날(4월 30일) 부활절(Semana Santa, 3월 말 또는 4월 초) 등도 구매 수요가 높은 기간이다.

멕시코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Black Friday를 벤치마킹하여 2011년부터 El Buen Fin이라는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11월 16~19일 시기에 멕시코 혁명기념일(Dia de la Revolucion Mexicana)과 연계하여 시행되며, 매년 참가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 온라인 판매 협회(AMVO)는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Hot Sale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전용 할인 행사를 실시하며, 이 역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멕시코의 휴가철은 7~8월 및 12~1월로 여름보다는 겨울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휴가 용품의 구입시즌은 통상 12월이다. 학교는 9월 학기제로 8월 말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종 문구류 등은 8월부터 9월까지 수요가 높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류 콘텐츠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여 한국제품 취급 유통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진출기업 확대로 대도시에서는 한인마트 및 한식당도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부터 멕시코 내에서 K-pop이 본격적인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한데 이어, 최근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많은 콘텐츠들이 소개되었고 오징어 게임 등이 멕시코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한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류 열풍 속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소비재 소비의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여, 뷰티 제품, 한국식품, 한류 굿즈 등 다양한 품목이 인기이다. 멕시코 내에는 한국 화장품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사 및 샵(플럼프스킨, 모미지, 우유뷰티, 미샤, 토니모리 등) 및 한국 식품 전용 유통사(아시아온마트, OK마트, 독수리, 모아샵, Maiko 등)가 다수 존재하며, 대도시에는 한식당 및 한인마트가 다수로 구글지도 기준 멕시코시티 내 한인마트가 20여개, 한식당이 50여개이다.

특히 K-pop 굿즈 및 한류스타 착용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진 에이전트 확보 중요

멕시코 진출 시 전국적인 배급망을 지닌 안정적인 대형 에이전트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멕시코의 에이전트들은 선진국 에이전트처럼 몇 년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관리해 가는 능력이 부족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라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수출 업체의 지원만 요구하는 수가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2) 할인 상술

본론으로 들어간 뒤에 처음부터 가격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멕시코인들은 값을 깎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다음부터는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값을 깎는 데서 희열을 맛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깎을 것을 고려해 가격을 제시한 후 가격 인하를 요구받으면 못 이기는 척 할인해주는 상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야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겨 놓으면 아예 깎으려 들지도 않고 상담을 포기할 수 있다.

3) 시장관리와 제품관리 필요

멕시코는 저소득층이 많아 일반적으로 가격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가품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저가품 시장과 고가품시장을 분리하고 제품도 고가품과 저가품을 차별화해야 한다. 한국산은 무조건 싸다는 식이 아니고 이 모델은 무엇 때문에 싸고 저 모델은 무엇 때문에 비싼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판매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설비 등 기계장치는 A/S가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보증할 시 판매에 유리하다.

4) 출장 시기 조절 필요

7~8월 및 12월은 휴가시즌이며, 부활절 기간도 대표적인 휴가 기간이므로 현지 출장 시에는 이 시기를 피해야 한다.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매년 10월 말 포뮬러 원(Formula 1)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 시기 숙소예약이 어렵다. 앞서 설명한 성수기에는 호텔 대부분이 일반적인 기간에 비해 높은 숙박료를 요구하고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5) 스페인어 습득 필수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상외로 영어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물론 중상류층은 하류층보다 영어에 능통한 편이나, 중상류층이라 하더라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 상호 간 의사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가 외국 수출상과 상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페인어 통역을 대동해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와 거래 시 간단한 회화라도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면 한결 상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므로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것이 도움된다.

6) 소량 주문 위주

멕시코 시장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수입시장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 시장보다는 소량주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거래까지 성사되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많으므로 끈기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여야 한다.

7) 여유가 느껴지는 정서

멕시코 바이어와 접촉하다 보면 '아오리타(Ahorita)'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 이는 '지금 즉시', '지금 바로'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말이

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 쪽 수출상의 오퍼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하면 '아오리타' 주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회신이 오지 않아 다시 연락하면 또 '아오리타'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아오리타'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5분 내인지, 1시간 내인지, 오늘 중인지, 또는 몇 월 며칠까지인지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인사

한국과 멕시코의 관습 중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인사방법이다. 멕시코의 인사법은 남녀 또는 여자들 간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가볍게 포옹한 채 상대의 볼에 가볍게 뺨을 대는 것이고, 남자들끼리는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이다. 바이어를 처음 만나 악수를 할 때 손을 힘있게 꼭 쥐지 않고 살며시 잡았다가 놓아버리면 멕시코 바이어는 틀림없이 '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 측 세일즈맨에 대해 처음부터 불신감을 가진다.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한 불쾌감까지 가질 수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된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악수는 너무 세게 손이 아플 정도로 꼭 쥐면 실례가 되지만, 전혀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악수하면 신뢰감을 주지 못하므로 반드시 적당한 힘을 실어 악수를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1~2m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어 비즈니스 시 기존의 인사 관습인 악수 등은 피해야 한다.

2) 유머 상술

비즈니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유머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놀고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멕시코인의 특성상 첫 대면에서 상담을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두 마디의 유머가 꼭 필요하다. 유머는 곧 상술이다. 멕시코 바이어들이 한국의 세일즈맨과 미국의 세일즈맨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하는 요소가 한국인들은 매너도 없고 너무 딱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담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 위해서는 상담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멕시코의 훌륭한 기후조건이라든지 문화유적, 카리브의 아름다운 해변, 멕시코인의 친절성, 테킬라와 코로나 맥주의 한국 내에서의 인기, 멕시코 여성의 아름다움, 마리아치의 낭만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꾼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물 주고받는 문화 일상화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초대를 받으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크리스마스 및 연말에는 친구, 친지, 거래처들에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있으나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에 돈으로 부조하는 관습은 없다. 현지인들이 대개 인삼차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인삼차도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품위가 있는 조그만 자개함, 전통인형, 토속적인 장식품도 선물할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에서 통상 사용하는 기업의 로고가 인쇄된 만년필, 골프공 등의 선물도 좋다. 기타 일을 하다 보면 상대측 인사의 비서나 안내원 등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를 위해 조그만 지갑이나, 열쇠고리 등 작은 선물을 준비해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여유로운 약속시간

멕시코 문화에서는 약속시각에 다소 늦더라도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부 바이어가 약속시간에 조금 늦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약속을 잡은 당사자의 기분이 상해 대화가 거칠어지는 때도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보편적인 일이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며 침착한 태도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

5) 인맥형성 우선

멕시코인들은 낙천적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 이는 성격이 급한 한국인이 적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한번 방문 상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매우 어려우므로, 시간을 갖고 거래선의 문을 여러 번 두드려 우선 친구처럼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 인맥을 먼저 쌓기 전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면 되며, 거래선 방문은 사전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Mercado Libre

사이트 주소	https://www.mercadolibre.com.mx/
개요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회사인 메르카도 리브레는 경매 사이트로 시작하여 중고제품 판매 플랫폼을 거쳐,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로 성장했다. 2022년 기준 점유율 20.4%로 멕시코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9년부터 멕시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매출액은 56억 달러이다. 고용인원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자동차용품, 장난감, 스포츠 용품, 미용 및 패션 제품 등 생활 소비재 전반
특징	새제품과 중고 제품을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다. 자체 지불 플랫폼 MercadoPago를 이용하여 안전한 전자 결제를 할 수 있다.

◦ Amazon

사이트 주소	www.amazon.com.mx
개요	멕시코의 2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판매자가 등록 판매하는 제품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2년 기준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 10.9%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5년부터 멕시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기준 매출액은 30억 달러이다. 고용인원은 약 1만명으로 추정된다.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자동차용품, 장난감, 스포츠 용품, 미용 및 패션 제품, 도서, 식품, 문화(음악 및 영화) 등 생활 소비재 전반
특징	유료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을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무료 배송 및 무료 반품을 제공한다. 또한 프라임 데이와 번개딜과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아마존 멕시코 계정 등록 후 멕시코를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 아마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 Liverpool

사이트 주소	https://www.liverpool.com.mx/tienda/home
개요	최초의 백화점 체인 중 하나로 멕시코 기업이다. 2022년 기준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 10.5%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847년 설립되었으며, 2022년 매출액은 29억 달러이다. 고용인원은 약 8만명으로 추정된다.
주요 판매 품목	패션제품, 전자 및 가전제품, 가구 등
특징	구매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로, “야간 세일(ventas nocturnas)”과 같은 다양한 행사에서 진행한다.

◦ Walmart

사이트 주소	https://www.walmart.com.mx/
개요	멕시코의 주요 슈퍼마켓 중 하나로 미국에서 1962년에 설립되고 2007년 멕시코에서 첫 매장을 개장하였다. 2022년 기준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 8.8%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62년에 설립되었으며, 2022년 매출액은 24억 달러이다.
주요 판매 품목	식료품 및 소모품, 건강 및 웰빙, 기술, 사무실 및 엔터테인먼트, 의류 및 가정용품 등
특징	멕시코 26개주의 170개 매장에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 인출 및 청구서 납부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 Coppel

사이트 주소	https://www.coppel.com/
개요	멕시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시나로아 주에 본사가 있으며 아르헨티나에도 지사가 있다. 22년 기준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 7.1%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41년 설립되었으며, 2022년 매출액은 20억 달러이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정용 가구, 주방 액세서리, 건강 및 미용 제품, 가전제품, 백색 가전, 휴대폰 및 액세서리 등
특징	소액 크레딧, 송금,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폴리에틸렌 타포린 응용 분야 하이테크 기업 A사의 성공사례

A사는 폴리에틸렌 타포린 제조 전문기업 한국과 중국에서 원단 및 완제품을 생산, 전 세계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타포린 응용 분야의 하이테크 기업이다. A사는 멕시코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자 주요 바이어들을 접촉하였고 각 바이어별 취급 품목과 사양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멕시코 타포린 시장이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고 주로 중량이 낮은 저가의 타포린이나 재활용 타포린을 취급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고품질 제품 취급으로 경쟁사 대비 가격이 5~10% 높은 A사에게는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전문 전시회인 하드웨어 엑스포에 참석해 전국에 퍼져있는 타깃 바이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A사의 샘플을 제공하고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절한 바이어를 찾을 수 있었다. 전시회를 통해 이미 A사 제품의 품질을 확인한 멕시코 바이어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독점권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멕시코 유력 바이어인 B사와 40피트 21개 컨테이너 오더라는 성과를 창출하게 됐다.

2) 라면 업체 A사의 성공사례

A사는 용기 라면이 주축인 멕시코 시장에서 되려 봉지라면을 주력상품으로 밀어 마케팅을 지속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A사가 진출할 당시 멕시코는 일본의 마루찬(Maruchan)이 용기라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크노르(Knorr), 캠벨(Campbell), 유니레버(Unilever) 등 인지가 높은 다국적 기업이 용기라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모두 마루찬의 벽을 뚫지 못하고 철수한 상황이었다. A사는 봉지라면은 한국식 매운맛을 살려 차별화하고, 용기라면은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존 라면들과 유사한 맛으로 출시함으로써 각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직접 수출한 제품으로 현지시장 진출을 시작한 후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생산을 시작하는 단계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꾀하였는데 특히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현지기업 P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생산설비를 공유하여 생산설비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3) 가전업체 D사의 성공사례

D사는 멕시코에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을 멕시코에서 판매하고 있다. D사는 멕시코는 햇볕이 강하고 건조한 지역이 많은 점 및 중산층도 가정부를 고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세탁기에서 탈수 기능을 빼고 세탁만 되는 세탁기를 판매했다. D사는 이 세탁기의 출시로 한때 멕시코 중저가 세탁기 점유율 65%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D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지 진출에서 시장조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차량위치추적기 S사의 성공 사례

S사는 도난방지용 차량 위치추적기 제조업체로 멕시코 전시회에서 멕시코 GPS 업체와 만나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본사에서 직접 멕시코로 엔지니어까지 파견해 가며 진행된 테스트 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됐고, 마침내 제품의 펌웨어 일부를 변경해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거래 동안 예상치 못한 불량품 발생 등의 위기에 처했으나 발 빠른 대처로 이를 극복, 바이어와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5) 의료기기 E사의 성공사례

E사는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X-Ray 기기 및 패널을 주로 판매, 생산했다. 국내, 미국 등의 시장에서 활동하던 중 중남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생겨 바이어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진출 초기 시장조사를 통해 멕시코 내 X-Ray 시스템은 CR(Computed Radiography)과 아날로그 방식이 대부분으로 한국의 DR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DR 방식은 진료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이어들이 해당 상품의 정보가 부족해 초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KOTRA 내방을 통해 수출 상담을 진행, 멕시코 바이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판매만이 아닌 A/S 서비스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은 자체 바이어 인터뷰를 바탕으로 일부 한국, 중국 업체의 경우 A/S 서비스나 보증기간을 약속하고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일부 멕시코 바이어들은 한국, 중국 업체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점을 조언했다. 조언을 들은 후 바이어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제품의 보증기간 보장 및 A/S 서비스 등 안전한 사후 관리를 약속하기 시작했다. 동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멕시코 내 신규 상품 수출 시 품질은 물론 제품의 사후 관리 및 품질 보장이 중요하다.

6) 화장품 기업 S사의 성공사례

한국계 화장품 회사인 S사는 약 4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 멕시코에는 모델링 테이크아웃 콤팩트파우더, 수분 크림, 마스크팩 등을 수출했다. 동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는 한국과 문화적 배경이 많이 달라서 색상, 디자인 등을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S사는 바이어에 수출뿐 아니라 마케팅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멕시코 시장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시장을 잘 아는 유동 전문 업체나 바이어를 통해 시장 정보를 얻고 향후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진행하도록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7) 화장품 기업 P사의 성공사례

멕시코 바이어 F사는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희망하여, 멕시코시티무역관에 제조사를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관에서는 한국기업 P사를 포함,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한국기업이 KOTRA가 주최한 2019년 Expo Corea에 참가하여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다. 바이어는 제조사의 가격경쟁력 및 제품 사양을 마음에 들어 했다. 바이어는 마스크팩 한 장당 15g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조사의 설득으로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그만큼의 중량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고, 바이어가 이를 빠르게 수락했다. 멕시코 현지 시장에 대한 빠른 이해와 바이어의 정확한 제품 요구사항을 신속히 충족하고, 제안하여 조율했기 때문에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8) 코로나 진단검사 제조업체 M사의 성공사례

한국 진단검사 제조업체 M사는 진단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나, KOTRA를 통해 추출키트가 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추출키트 및 장비로 멕시코 시장을 선 공략했다. M사가 전략을 수정함에 따라, 멕시코 주요 주(州)정부에서 관심을 보이며, 주 정부 차원에서 인증, 통관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동 기업은 특히 A/S 분야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하며, 구매 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구매 후에도 멕시코를 직접 방문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현지 주(州) 정부는 국내기업을 재구매하며 A/S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9) 의료기기 기업 S사의 성공사례

멕시코는 FTA 비체결국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이 한정적이라서 한국산 의료기기가 진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의료기기기업 S사는 코트라의 ESG 사업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자사제품을 기증함으로써 정부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때 S사의 제품을 써본 기관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대량주문을 하게 되며 S사는 의료기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0) 내수기업 E사의 성공사례

수출 경험이 없는 E사는 멕시코 바이어로부터 수요 대응에 애로가 발생하여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의 도움으로 바이어 요청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상의 멕시코 화장품 인증 관련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였는데 '해외시장뉴스' 공유를 통해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현지진출을 위한 정확한 인증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KOTRA 소비재 행사 등 마케팅을 지원하여 멕시코 진입에 성공하게 되었다.

나. 실패사례

해당사례 없음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2012년 11월 9일 개정 신이민법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비자발급 절차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 관광비자로 입국해 다른 형태의 비자로 변경 가능했던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거주 목적에 따라 출국 전 주한 멕시코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즉 관광으로 입국하여 체류 자격을 현지에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80일 이상 4년 이하로 장기 비즈니스, 엔지니어, 주재원, 교환 학생, 파견학생, 어학연수, 멕시코 현지 업체로부터 채용된 자, 인턴십 프로그램 및 관광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한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의 비자처리 기간은 약 10일(주말, 공휴일 제외)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비자 등 영사업무 및 민사업무는 모두 예약제(MEXITEL)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안내 링크: <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 문의: consularesembcor@sre.gob.mx
- 예약: <https://citas.sre.gob.mx/>

예약 시, 신청자가 한국국적자일 경우 “NACIONALIDAD”(국적)란에 “DE LA REPUBLICA DE COREA” 선택하면 된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에서 분류한 비자의 종류 및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자(관광비자)

관광 목적의 한국 국적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180일간 무비자로 입국 및 체류를 할 수 있다.

② 단기출장비자(180일 미만)

한-멕시코 간 체결된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단기 출장, 관광, 교육, 경유 목적으로 방문할 대한민국 국적자는 최대 18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자 접수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 캐나다, 쉹겐 조약, 영국, 일본 영주권 혹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할 경우, 방문자 비자/단기출장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 단,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위해 가는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대사관 관련 공지사항 : http://overseas.mofa.go.kr/mx-ko/brd/m_5936/view.do?seq=13466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③ 단기거주비자-주재원(180일 이상 4년 이하)

이 체류자격은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 즉, 한국법인, 기관에서 파견, 주재원 등으로 멕시코에 가는 경우에 한하며 급여는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비영리 목적 명시).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워킹비자(NUT)를 신청해야 한다.

④ 워킹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멕시코에서 일할 목적으로 가는 경우 멕시코 업체가 직접 멕시코 이민청에 사전비자신청을 한 후, 비자접수번호(Número Unico de

Tramite, NUT)를 받아야 하며, 영사 인터뷰 승인을 받은 후 멕시코대사관에서 비자 접수를 하여야 한다.

⑤ 학생비자(180일 미만)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180일 이하) 입국 가능하므로, 이 경우 학생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일본 거주증 혹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할 경우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라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⑥ 학생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또는 입학예정확인서가 필요하며, 동 서류에는 학업기간이 180일 이상 명시되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 멕시코 이민청에 방문·신고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⑦ 선교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장 원본 및 종교활동과 관련된 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⑧ 가족동반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한국에 있는 경우)

가족을 초청하는 사람이 한국에 체류 중일 경우, 초청할 가족구성원과 함께 멕시코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단기 거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에 가족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초청하는 사람의 유효한 멕시코 비자 또는 Residencia Temporal 또는 Residencia Permanente 카드와 여권을 지참하여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초청받아 가는 가족구성원의 사람 수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멕시코의 법적 성인 나이는 18세로, 만 18세가 된 자녀는 가족동반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⑨ 가족동반 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멕시코에 있는 경우)

신청 인원의 수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멕시코대사관에 접수하기 전, 멕시코 현지에서 거주하는 초청자가 멕시코 이민청(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 INAMI)에 직접 방문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구성원의 여권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비자신청 및 접수를 해야 한다.

* 신청비자 종류: 가족동반비자 (UNIDAD FAMILIAR) 이후 멕시코 이민청으로부터 비자허가서(NUT 번호)를 수령한 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일반 면세를 기준으로 육로 이동 시 미화 300불 이내, 항공 및 해운 이용 시 미화 500불의 생활용품은 면세 한도금액이다. 주류의 경우 와인은 최대 6리터, 알코올 음료는 최대 3리터 반입이 가능하며, 담배의 경우 궤련은 10갑, 시가는 25개 또는 200g의 실담배일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참조링크 http://omawww.sat.gob.mx/aduanas/pasajeros/Paginas/Mercancia_ingresar_Mexico.aspx)

멕시코에 입국 또는 경유, 환승하는 여행객이라도 미화 1만 불 이상을 소지하여 세관에 적발될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전화번호	+52-55-5202-9866
주소	Lope Diaz de Armendariz 110, Lomas de Virreyes C.P1100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mx-ko/index.do

○ 한국수출입은행

전화번호	+52-55-5511-8445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389 Piso 10A, Col. Cuauhtemoc, Del. Cuauhtemoc, 06500, Mexico D.F., Mexico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index

○ 멕시코 한인회

전화번호	+52-55-2580-9898
주소	Liverpool 17 Col.Juarez ,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haninmexico.korean.net

○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화번호	+52-55-9155-7686
주소	Reforma Capital Torre B Piso 17-A, Paseo de la Reforma 250, Col. Juarez, Del. Cuauhtemoc, CDMX.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index.do

○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52-55-6284-3247
주소	Temístocles 122, Colonia Polanco, Ciudad de México
홈페이지	http://mexico.korean-culture.org/ko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재정신용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전화번호	+52-55-3688-1100
주소	Palacio Nacional (Calle Correo Mayor esquina con calle Soledad), Centro, Ciudad de México. C.P. 06060
홈페이지	https://www.gob.mx/shcp

○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전화번호	+52-55-5729-9100
주소	Pachuca 189, Col. Condesa, Demarcación Territorial Cuauhtémoc, Ciudad de México. C.P. 06140
홈페이지	https://www.gob.mx/se/

○ 외교부(S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전화번호	+52-55-3686-5100
주소	Plaza Juárez 20 Col. Centro 06010 Ciudad de México
홈페이지	https://www.gob.mx/sre

○ Reforma 신문

전화번호	+52-55-5628-7575/7878/7100
주소	Av. Mexico Coyoacan #40, Col. Santa Cruz Atoyac, Del. Benito Juarez C.P. 0331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www.reforma.com

○ 대외무역협회(CONSEJO MEXICANO DE COMERCIO EXTERIO)

전화번호	+52-55-5231-7100
주소	Monte Elbruz 124 Piso 8, Miguel Hidalgo, Palmitas, C.P. 1156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www.comce.org.mx/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8페소(2023년 11월 기준)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9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9.5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0.0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7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90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70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700
8	의료	항생제	14정	22.9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4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3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700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2.2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40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4.100
16	여가	담배	1갑	4.200
17	여가	소주(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7.80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일일)	11.5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 학비(ASF 고등학교 기준)수업료	월	1682.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1.250
21	식품	쌀	1kg	2.200
22	식품	식빵	한묶음	2.600
23	식품	고기	1kg	11.100
24	식품	계란	12개	1.900
25	식품	우유	1L	1.600

26	식품	식용유	1L	4.00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100
28	주거	수도세	m ³	1.400
29	주거	가스비	m ³	0.500
30	의료	국제/사립학교 학비(ASF 초등학교 기준)수업료	월	1524.0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55.60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124.80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kW	0.50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	분	0.26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분	0.10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19.400
37	서비스	TV 수신료	1개월	13.80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7.70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2.50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7.000

<자료원 :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체 조사 및 언론자료 종합>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멕시코는 자체 통화인 멕시코 페소(MXN, \$)를 사용한다. 현지에서는 페소화를 \$로 표기하므로 미 달러화(US \$ 표기)와 혼동하기 쉬워 유의해야 한다. 지폐로는 20, 50, 100, 200, 500, 1,000페소가 있으며 500페소 이상은 작은 매장에서는 거스름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동전으로는 1, 2, 5, 10페소가 있으며, 1페소 아래 단위인 센타보(10센타보, 20센타보, 50센타보)가 있지만 최근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는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많아 신권 발권 시 전면 교체에 시간이 걸리는 편으로, 동일 액수에 대해 다양한 모양의 화폐가 유통 중이다. 칸쿤 등 일부 유명 관광지에서는 미 달러화로 결제할 수 있지만 멕시코 대부분 지역에서는 페소화만 결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국민은 탈세의 사유로 달러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일반은행의 경우 달러 현금을 받지 않는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또는 시내 사설환전소(Casa de Cambio) 혹은 은행에서 가능하다. 멕시코는 시내 환전소보다 공항의 환율이 좋은 편이며, 대체로 호텔 환율은 매우 불리하므로 잘 따져보아야 한다. 다만 공항 내 환전소에서 미화 1만 불 이상을 환전할 경우에는 연방경찰에 통보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공항에서는 다액 환전은 삼가는 것이 좋다. 대개 환전 시 여권으로 신분 증명을 한 후 환전을 해준다. 강도나 소매치기 위험이 있으니 고액을 환전할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이용

멕시코에서는 Visa와 Master카드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 단, Amex 신용카드의 상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높은 편이고 별도 단말기가 필요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복제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카드 뒷면 CVC 코드가 보이지 않도록 종이를 작게 오려 붙여 가리는 것을 권장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멕시코는 한국과 비교해서 도로 인프라가 낙후된 편이다. 고속도로, 국도 등은 노후화된 곳이 많고 정부에서는 예산 문제로 전면적인 도로 정비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구간만 정비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교통체증이 심하다. INRIX의 2022 세계교통평점표(Global Traffic Scorecard)에 따르면, 전세계 991개 도시 중 멕시코의 몬테레이시가 11위, 멕시코시티가 22위를 기록하였다. 교통이 가장 혼잡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인 7시~9시, 18시~20시이며, 우천 시 교통체증이 가중된다. 또한, 멕시코는 별도의 운전면허 자격 시험 없이 면허를 구매할 수 있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고, 또 한국과 달리 신호등이 없는 거리가 많아 무단횡단도 잦기 때문에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버스

멕시코는 메트로버스(Metrobus), 공영버스(Ecobus), 전기버스(Trolebus), 소형버스(Microbus, Combi) 등 다양한 종류의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이 중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운행되는 2층버스인 메트로버스가 가장 쾌적하며, 주요 관광지 및 도심 중심을 7개 노선이 운행되어 외국인들도 다수 이용한다. 메트로버스 이용 요금은 거리와 상관없이 6페소이며 교통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타 지역으로 가는 광역버스는 Ado, Primera Plus, ETN 등 다양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도시로 연결되어 관광객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

택시

멕시코는 택시 강도가 성행하므로 노상에서 일반택시(분홍색 띠를 두른 Libre 택시) 승차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반드시 Uber, DiDi 등 공유택시 서비스 또는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한다. Uber 및 Didi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현황에 대해 요율변동이 크나 전반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공항에서는 공유택시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항택시(Taxi Seguro) 이용을 권장한다. 출국장 내 창구에서 판매소에서 거리 별 산정된 정액 요금에 따라 쿠폰 구입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탑승하면 된다. 간혹 입국장 주변에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나 바가지요금과 강도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하철

총 12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및 지연이 잦은 편이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5페소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이용가능하다.

자동차 렌트

주요 자동차 렌트 업체로는 Hertz, Avis 등이 있으며, 멕시코시티 '23년 4월 기준, 1일 렌트비는 소형차 약 1,300MXN, 중형차 및 SUV 2,500MXN, 미니밴 4,000MXN이며 1주~4주 렌트 시 약 10~20%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상기 요금에는 보험료와 보증금이 미포함이며, 보험료가 1일 차량 렌트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제 금액 확인이 꼭 필요하다. 차량 렌트 시에는 통상적으로 신분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보증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항공

멕시코는 국토 면적이 넓고 철로, 도로 등의 사정이 좋지 않아 항공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 국내선은 대부분의 주에서 운항 중이며, 국제선은 멕시코시티 및 몬테레이 등 대도시를 위주로 운항한다. 멕시코시티에는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과 펠리페 앙헬레스 2개의 공항이 있다. 펠리페 앙헬레스는 '22년 3월에 신규 개항한 공항으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제편들은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에서 취항한다.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에는 두 개의 터미널이 있는데, 터미널 2는 국적기인 아에로멕시코 외 주요 외항사가 운영 중이며, 터미널1에서 그 외 저가항공사 VivaAerobus, Volaris 등 항공기가 운영된다. 베니토 후아레스 공항은 시내에서 비교적 가까워 차량으로 30분 내외에 도착할 수 있다.

다. 통신

핸드폰

멕시코의 주요 통신사로는 텔셀(Telcel), AT&T, 모비스타(Movistar) 등이 있으며, 통신업체에 가입 후 정액제(Plan)을 사용하거나 선불 USIM카드(Sim Prepago)를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멕시코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정액제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가입 절차가 복잡해 출장, 유학과 같이 일정 기간 체류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선불USIM카드 구입을 권장한다. 선불 USIM카드는 휴대전화 대리점 및 편의점(Oxxo, 세븐일레븐), 마트(월마트, Sanbourns), 휴대전화 액세서리샵(Mobo)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비용은 통신사별로 상이하므로 전화/인터넷 사용량 및 체류기간에 따라 선택하면된다. '23년 4월 기준, USIM 카드 가격은 79MXN이며, 선불 SIM카드 가격은 10MXN(1일권, 50MB)~500MXN(30일권, 6GB)까지 다양하다. 멕시코의 국가번호는 +52로, 현지 전화 이용 시에는 국가번호를 생략하고 10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와이파이)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넘겨받은 후 명의만 바뀌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청 및 개설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규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가격 등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가정용 TV, 인터넷, 유선전화 한화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패키지 가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500페소(약

24~25달러) 정도이다.(인터넷, 시내전화 무제한 기준) 참고로 인터넷 신규 신청의 경우 통신사 사정에 따라 설치기사가 신청 후 2~3주 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라. 관광명소

○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

도시명	San Francisco Mazapa
주소	55800 San Juan Teotihuacan de Arista, México
운영시간	월~일요일(08:00~16: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신의 도시라는 의미로 기원전 약 2세기에 건립되었으며, 전성기에 중남미에서 최대 인구가 거주한 기록이 있다.

○ 소칼로 광장(Zocalo)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Plaza de la Constitucion, Centro Historico, Centro, C.P. 06010, CDMX, Mexico
운영시간	24시간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장이며, 주변에 대통령궁,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Templo Mayor(아즈텍 유적지)가 위치하고 있다.

○ 국립인류학박물관(Anthropology National Museum)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Av. Paseo de la Reforma s/n, Polanco, Bosque de Chapultepec I Secc, Miguel Hidalgo, 11560 Ciudad de México, CDMX
운영시간	화~일요일(09:00~17:00)
휴무일	월요일 휴무
명소소개	멕시코시티 차풀테펙(Chapultepec) 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아즈텍, 마야, 톨테카 등 멕시코 주요 문명 유물을 전시한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태양석(Piedra del Sol) 등 진귀한 유물 관람이 가능하다.

○ 과달루페 성당(Basilica of Guadalupe)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Fray Juan de Zumérraga No. 2, Villa Gustavo A. Madero, Gustavo A. Madero, 07050 Ciudad de México, CDMX

운영시간	월~일요일(09:00~18:3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세계 3대 성모 발현지(과달루페 성모)로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이자 종교,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달루페 성모일(12. 12.)에 전국 각지에서 신자들이 집결한다.

○ 국립예술극장(Bellas Artes)(Palace of Fine Arts Mexico)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Av. Juarez, Centro Historico, C.P. 06050, CDMX, Mexico
운영시간	화~일요일(11:00~17:00)
휴무일	월요일 휴무
명소소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극장으로, 멕시코 전통 민속무용,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자료원 : 멕시코 현지 언론자료 종합>

마. 식당

- 현지식당

○ 산 앙헬 인 (Restaurante San Angel In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 5616-1402
주소	Diego Rivera 50, San Angel Inn, C.P. 0106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토요일(08:00~01:00), 일요일(08: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멕시코시티 남쪽 지역에 있는 식당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정원이 인상적이다. 음식 맛도 괜찮은 편이며,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다.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식당이며, 동 식당 주변에는 주말에 전통 공예품 베품시장이 열린다.
비고	https://sanangelinn.com/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엘 칼리파 (El Califa)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511-9424

주소	Av. Paseo de la Reforma 382, Juárez, Cuauhtémoc, 06600 Ciudad de México, CDMX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일요일(12:00~4: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멕시코 서민 요리이자 가장 대표적인 요리인 따꼬(Taco) 전문 체인점으로 비교적 깔끔한 분위기이다.
비고	https://elcalifa.com.mx/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후난(Huna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661-6414
주소	Pedro Luis Ogazon 102, San Angel, C.P. 0102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수(13:30~23:00), 목~토(13:30~24:00), 일(13:30~19: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멕시코인들에게 인기 있는 고급 중식당 중 하나로, 분위기가 매우 고급스럽고 전반적으로 음식 맛도 훌륭하다.
비고	https://www.hunan.com.mx/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나가오카(Nagaoka)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543-9530
주소	Arkansas 38, Napoles, C.P. 0381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화~토요일(13:00~22:30), 일요일(13:00~19:30)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으로 음식 맛도 괜찮으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특히 우동이 유명하다. 위치는 WTC(World Trade Center) 근처에 있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영빈관(Young Bin Kwa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208-9399
주소	Copenhagen 28, Juarez, C.P. 0660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일요일(11:30~21: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각종 고기류, 식사류(찌개, 탕)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아리랑(Arirang Korean Restaurant)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996-9618
주소	Florencia 67, Juarez, C.P. 0660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화~일요일(12:00~22:00)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보쌈, 생선회, 복요리, 각종 찌개류 및 칼국수 등을 취급한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민속촌(Min Sok Cho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9155-7676
주소	Florencia 45, Juarez, C.P. 06600,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토요일(12:00~22: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국밥류를 주로 취급한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고향집(Gohyangjip)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208-0215
주소	Florencia 43, Juarez, Cuauhtemoc, 06600 Ciudad de Mexico, CDMX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토요일(12:00~22: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김치삼겹전골, 닭볶음탕, 샤브샤브 등을 취급한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수라상(Surasang)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511-7929
주소	VARSOVIA 13 COL. JUAREZ 06600 MEXICO D.F.,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월~금요일(12:00-21:30), 토~일요일(12: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김밥, 보쌈,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한식류를 취급하고 있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늘봄(Nul bom)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207-2428
주소	Londres 177, Juarez, Cuauhtemoc, 06600 Col Juarez, CDMX,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된장찌개, 갈비탕, 설렁탕, 육개장, 삼겹살, 보리밥 등 다양한 한식류를 취급하고 있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나대포(Nadefo)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525-0351
주소	Liverpool 183, Mexico City 06600,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11:00-23:00
휴무일	무휴
소개	비빔밥, 갈비창, 갈비찜, 차돌박이, LA 갈비, 곱창 등 다양한 한식류를 취급하고 있다.
비고	https://www.facebook.com/NadefoMX/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마포갈비(Mapo Gal Bi)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전화번호	+52-55-5511-0305
주소	Liverpool #185 local E Col. Juarez Deleg. Cuauhtemoc C.P. 06600 Mexico D.F., Mexico
가격	메뉴에 따라 상이
영업시간	12:00-22:00
휴무일	화요일 휴무
소개	양념돼지갈비, 양념소갈비, 불고기, 곱창전골 등 다양한 한식류를 취급하고 있다.
비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및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호텔 리우 플라자 과달라하라(Hotel Riu Plaza Guadalajara)

도시명	과달라하라(Guadalajara)
주소	Av. Adolfo Lopez Mateos Sur 830, Chapalita, C.P. 44500 Guadalajara, Jal.
전화번호	+52-33-3880-7500
홈페이지	https://www.riu.com/en/hotel/mexico/guadalajara/hotel-riu-plaza-guadalajara/
숙박료	82.3 달러 (부가세 별도)~

소개	도시의 가장 독점적인 과달라하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5성급 호텔로, Travelife Sustainability System GOLD 인증 및 AAA Four Diamond Award를 수상하였으며, 식당, 바, 수영장, 스파, 헬스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비고	성수기, 할인 등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웨라톤 멕시코시티 마리아 이사벨(Hotel Maria Isabel Sherato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Paseo de la Reforma 325, Cuauhtemoc, C.P. 06500, CDMX, Mexico Ciudad de México, CDMX
전화번호	+52-55-5242-5555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mexis-sheraton-mexico-city-maria-isabel-hotel/
숙박료	235.7 달러(부가세 별도)~
소개	Angel de la Independencia 기념탑 바로 앞에 있는 도시 최고의 호텔로 유명한 Paseo de la Reforma 거리의 멕시코시티 중심에 위치하며, 다양한 식당, 박물관, 역사관광지 등과 가까이 있다.
비고	성수기, 할인 등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사피 로열 럭셔리 호텔(Safi Royal Luxury Hotel)

도시명	몬테레이(Monterrey)
주소	Av. Diego Rivera 555, Valle Oriente, 66260 San Pedro Garza García, N.L.
전화번호	+52-81-8100-7000
홈페이지	http://www.safihotel.com/towers/english/
숙박료	기준가 163.7달러 / 할인가 65달러 (부가세 별도)~
소개	회의실, 수영장, 체육관, 고속 인터넷, 비즈니스 센터, 넓은 주차장 등 모든 호텔 편의시설을 구비한 몬테레이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접근성이 좋다. 244개의 넓고 우아하고 편안한 객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24시간 풀 서비스로 국제 요리를 제공한다.
비고	성수기, 할인 등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까사 뽀뽀(Casa Pepe Hostel Boutique)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República de Uruguay 86, Centro Histórico de la Cdad. de México, Centro, Cuauhtémoc, 06000 Ciudad de México, CDMX
전화번호	+52-55-4040-7997

홈페이지	https://www.casapepe.mx/
숙박료	51 달러 수준
소개	멕시코시티 센트로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로, 소칼로 광장(Zocalo Square)에서 600m 거리,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Metropolitan Cathedral)에서 1km 이내의 거리에 있다. 무료 Wi-Fi를 갖춘 숙박 시설을 제공한다. 모든 객실에 샤워시설, 발코니, 옷장이 구비되어 있다.
비고	성수기, 할인 등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원 : 게스트 하우스 까사 빠페 홈페이지 >

사. 치안

치안상황

멕시코의 치안은 한국에 비해 다소 불안한 편이다. 멕시코의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은 24.8명으로 국제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가장 높은 살인율을 보유한 엘살바도르(61.8) 등과 비교하였을 때는 확연히 낮은 수치이다. 각 주별 범죄 발생건수로 보면 주로 거주인구가 많고, 밀집되어 있는 산업거점이 되는 주일 수록 범죄발생이 높다.

멕시코를 방문하는 출장객은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 일반 시내 택시는 가능한 한 타지 말 것
 -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반드시 공항 택시 티켓을 구입, 공항 택시 이용
 - 호텔에서는 호텔 택시를 이용하고, 다른 장소에는 공유택시(Uber/Didi) 활용
- 외출 시 귀중품은 프런트나 금고에 보관하고, 최소한의 현금만 여러 곳에 나누어 소지
- 야간 중 시내 배회 절대 금지
- 대로변 등 안전지대에 위치한 호텔 투숙
- 거리에서는 절대로 지갑이나 현금을 내보이지 말 것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에 연락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선임한다.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되게 행동하거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해둔다.

2)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 응급 전화번호

-범죄신고, 화재신고, 앰불런스 등: 911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52-55-8581-2808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멕시코시티는 치안이 불안하여, 치안이 좋은 부유층 지역의 임차료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안전한 지역 중 한국인이 선호하는 동네는 Zona rosa, Polanco, Interlomas이다. 이 지역의 월 임차료는 90~130 m² 기준(방2,화장실2) Zona rosa 1,100~2,000달러, Polanco 1,600~3,000달러 Interlomas 1,300~3,000달러 정도이다

멕시코에는 치안이 불안한 서민 거주지 지역을 빼면 주택 규모가 상당히 큰 편으로 500m² 규모의 주택도 많다. 주택 임차 시 부동산을 통해 구하는 경우 소개비는 전액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며, 보통 1개월분 임차료를 지급한다. 주택 임차료는 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며, 미화 계약인 경우에는 보통 미국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임차시 임차 보증금은 보통 1개월분 임차료를 내며 (계약별 상이) 계약 해지 시에는 반환하게 되어있으나, 각종 수리원상복구비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 대부분이며, 가구가 구비된 경우에는 임차 료가 10%~20% 상승하며 계약 해지 시 가구 손상을 이유로 임차 보증금 반환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멕시코시티는 계절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중 온화한 기후다. 그러나, 일교차가 심하며 주택에 별도 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일조량이 충분한 지 반드시 확인하며, 북향은 권장하지 않는다.

주택 임차 관련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플랫폼은 Inmuebles24, Vivanuncios 등이 있다.

<https://www.inmuebles24.com/>

<https://www.vivanuncios.com.mx/>

전화

멕시코 유선 및 무선전화시장은 민영화되어 Telmex, Maxcom, Totalplay, IZZI 등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Telmex가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Axtel의 경우, Televisa에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매각하여 IZZI라는 기업이 서비스 중이다.

인터넷 웹사이트 혹은 전화로 인터넷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터넷 설치 시 전화서비스(Internet + Telefonía)까지 함께 설치하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바로 신청한 연락처로 전화가 와서 최종 확인을 하는 구조다.

Telmex 전화번호는 800 123 0321로 전국 공통이며, 웹사이트(www.telmex.com.mx)에서 신청가능하다.

IZZI 전화번호는 800 120 5000이며, 웹사이트(www.ftthdemexico.mx)에서 신청가능하다.

Maxcom의 경우도 웹사이트(www.maxcom.mx)에 접속한 후, Centro de Atención을 클릭해 지역별 고객센터센터에 전화로 신청한다.

Totalplay는 웹사이트(www.totalplay.com.mx)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화번호 800 550 5555으로 바로 연락할 수 있다.

전압/플러그

멕시코 전압은 산업용의 경우 100V 및 220V 두 가지를 사용하나, 가정용은 110V~127V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압기(승압기)가 필요하다. 한국 제품을 가지고 올 경우, 승압기를 사용해도 성능이 온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멕시코 전력사업은 1960년에 국영화 되었으며, 전력 사정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며, 정전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식수

멕시코 수도물은 다량의 석회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처럼 수도물을 그대로 음용할 수 없다. 특히, 식수에 부적합한 물을 음용할 경우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식수는 생수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며 예민한 사람의 경우, 야채, 과일 등을 세척할 시에도 수도물 대신 생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다. 멕시코 대형슈퍼, 편의점, 소규모 식품점(Abarrotes)에서는 0.5~1.5리터의 식수용 생수뿐 아니라 요리 및 일상용도를 위한 대량의 20리터짜리 정수통물(Garrafn)도 판매한다.

주요 브랜드로 Santa Maria, Ciel, Epura, Bonafont, Nestlé 등이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멕시코에서 구입할 수 있는 차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볼보, 지엠, 포드,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혼다, 닛산, 도요타 등으로 대다수의 글로벌 브랜드가 진출해 있다.

기아, 현대자동차 등 한국산 자동차도 구매할 수 있다. 자동차 대리점이 도시 곳곳에 위치해 있어 각자의 취향과 예산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차량가격

2023년 11월 기준 멕시코 내 대표적인 자동차 모델별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다.

Nissan의 Versa는 17,180~21,458달러, March는 14,358 - 17,495달러이며 KIA의 K3은 17,440 - 25,161 달러, Volkswagen의 Vento는 14,444 - 17,388 달러, Jetta는 21,100 -29,419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2024년형 기준, 1달러당 18 페소) 자세한 차량의 구매가격은 각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의 국내 및 국제 운전면허증은 일정 조건 하에 멕시코에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멕시코시티의 경우 "도로교통에 관한 규칙" 섹션B 제 1장 제44조에 '차량 운전시 국내 또는 외국 당국에서 발급한 해당 차량에 유효한 운전면허 또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 등의 외국 면허도 인정된다. 기간은 멕시코 입국 후 180일간이며, 한국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똑같이 취급한다(체류 기간을 입증하기 위해서 멕시코 입국 시 이민국에서 교부 받은 입국신고서 FMM이 필요함). 그 외 주에서는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1년간 인정해 주고 있다.

주의할 것은 외국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는 있지만, 주별로 세부적 인정 범위가 다른 만큼, 각 주의 운전면허 발급 당국과 보험사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인 소유 차량(콜리마주)에 대해서만 면허를 인정하거나, 렌터카나, 미국 등에서 같이 잠시 타고 온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선 교통경찰들이 운전면허 발급 당국과 다른 부처 소속일 경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스페인어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니, 반드시 멕시코 운전 면허증 취득 전에는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을 같이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권장한다.

현지 운전면허 취득은 무시험으로 수수료(약 55 달러) 납부 후 취득하는 형태다. 체류비자 및 거주증명서류(전화세, 전기세 납부 영수증 등)가 있을 경우, OXXO 등 편의점에서 미리 운전면허 취득 수수료를 납부 후 가까운 SEMOVI 지점을 예약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지 경찰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하여 벌금을 부과하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에 차량 구매 및 운전 등을 권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Citibanamex 은행: Citigroup 자회사로 멕시코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은행
- BBVA Bancomer 은행: 멕시코 내 자산규모 1, 2위를 다투는 대형 은행
- Santander: 스페인의 은행으로 멕시코 내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
- 신한은행: 국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멕시코 법인 개점
- KEB 하나은행: 2019년 5월 국내 금융사 중 두 번째로 멕시코 법인 개점

계좌 개설방법

멕시코에 설립된 법인 및 멕시코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취업이 가능한 단기거주비자(Visa para Residentes Temporales) 및 영주권(Visa para Residentes Permanentes)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대출상품 및 은행에 따라 조건이 다르지만, 최소한 2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의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보증인이 필요하다.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보증인 및 신청인 서명 필요)
- 세무등록증(Alta de Hacienda), 납세등록증(Cédula de Identificación Fiscal) 사본
- 사업자등록증(Acta Constitutiva), 소유권 및 영업 등록증(Registro Público de la Propiedad y del Comercio) 사본. 상가 등록증의 변경 시 변경내용 사본 포함
- 위임자 지정서류 사본. 위임자는 대출계약서에 사인함.
- 법인대표, 위임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해당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 사본 제출
- 법인, 보증인의 주소증명서 사본.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과금(수도, 전기, 재산세, 전화료) 영수증으로 가능

※ 금융정보 제출

- 재무제표를 포함한 법인의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제출. 대출은행에 따라 3년간의 내역서, 혹은 최근 90일 이내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 가장 최근의 연간 세무신고서 사본
- 보증인의 최근 자산신고서 사본
- 신용평가 승인서, 필요할 경우 보증인도 제출 필요

○ 계좌 개설 시 개인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보증인 및 신청인 서명 필요)
- 신청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해당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외국인의 경우 대출신청에 적합한 비자(취업 가능 단기거주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 제출
- 세무등록증(Alta de Hacienda), 납세등록증(Cédula de Identificación Fiscal) 사본
- 법인, 보증인의 주소증명서 사본.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과금(수도, 전기, 재산세, 전화료) 영수증으로 가능
- 최근 연간 세무신고내역서 사본
- 보증인의 최근 자산신고서 사본
- 신용평가 승인서, 필요할 경우 보증인도 제출 필요
- * 사본인 경우는 원본을 지참해 대조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American School Foundation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커리큘럼	Primary Years Programme (PYP), Middle Years Programme (MYP), the Diploma Programme(DP) 총 3 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
학비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월별 학비 입학금: 약 7,000달러 등록비 (월/연2회): 23,135~30,275페소(약 1,285~1,682 달러) 수업료(월/연10회): 23,135~30,275페소(약 1,285~1,682 달러) 스쿨버스비(월/연10회): 4,175 페소(약 232 달러)
홈페이지	https://www.asf.edu.mx/
비고	- American School과 GreenGate는 각각 미국계와 영국계를 대표하는 학교로 역사가 깊으며, 입학 절차가 까다로움. 입학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 받고 주한 멕시코 대사관이나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한 후 면접을 요청 - American School과 GreenGate는 일단 서류심사를 후 대기자명단에 올려놓고 결원이 생기면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 및 면접시험 후 입학할 허용. 영어나 스페인어 중 최소한 하나를 구사할 수 있다면 학교 측에서 먼저 배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단 입학하면 교실 내에서는 영어만 사용 - WestHill, Eton, Hamilton 등은 비교적 정원에 여유가 있어 입학이 용이한 편

<자료원 : American School 홈페이지>

- 현지학교

o 재 멕시코 한글학교

도시명	멕시코시티
커리큘럼	만 4세 이상 유치부반(다람쥐반, 돌리반, 공룡반), 초등부(1~6학년), 중등부(1~3학년), 다문화반(은하수 1,3반)과 현지인반(아리랑 1~3반) 등 총 17개 반을 운영
학비	입학금 1년에 500페소(약 28불), 학비는 월 600페소(약 33불)이며 중등부는 월 700페소(약 39불)
홈페이지	http://homepy.korean.net/~ksim2010/www/data/data/list.htm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마. 병원

o Angeles del Pedregal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Camino de Sta. Teresa 1055, Heroes de Padierna, C.P. 10700, CDMX, Mexico

전화번호	+52-55-5449-5500
진료과목	알레르기, 심장병, 위장병, 신경, 정신병 등

○ 서울클리닉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Londres #227, Juarez, Cuauhtemoc, CDMX
전화번호	+52-55-5208-5448
진료과목	감기, 피부병, 위장염 등
비고	문장호 원장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El Palacio de Hierro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Av Moliere 222, Polanco, Polanco II Secc, C.P. 1155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www.elpalaciodehierro.com/
비고	멕시코 최고급 백화점으로, 전국에 2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남성용품, 여성용품, 신발, 향수 및 액세서리 섹션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버버리, 에스티로더, 지방시, 구찌 등이 있다.

○ Liverpool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Avenida Cuauhtemoc 462, Piedad Narvarte, C.P. 0302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www.liverpool.com.mx/tienda/home.jsp
비고	중, 고소득층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명품 백화점과 미식가 식당을 운영하는 멕시코의 백화점 브랜드이다.

○ Centro Santa Fe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Vasco de Quiroga 3800, Lomas de Santa Fe, Contadero, C.P. 05109,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centrosantafe.com.mx/

비고	신도시 산타페에 있는 쇼핑몰이다.
----	--------------------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식품점

○ Walmart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Av. Insurgentes Nte. 131, Buenavista, Cuauhtémoc, 06300 Ciudad de México, CDMX
취급 식료품	멕시코 음식, 아시아 음식, 미국식 음식 등

○ A-Mart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C. Río Tiber 71, Cuauhtémoc, 06500 Ciudad de México, CDMX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 Mikasa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San Luis Potosí 173, Roma Nte., Cuauhtémoc, 06700 Ciudad de México, CDMX
취급 식료품	일본 식료품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기타 편의시설

○ 바스콘셀로스 도서관(Biblioteca Vasconcelos)

도시명	멕시코시티(CDMX)
주소	Mosqueta, Eje 1 Nte. S/N, Buenavista, C.P. 06350,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s://www.bibliotecavasconcelos.gob.mx/
소개	멕시코의 국립 도서관장을 역임한 호세 바스콘셀로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도서관으로, 그의 난해한 구조 덕분에 인터스텔라 도서관으로도 불린다. 큐브형의 구조물이 서로 얽혀 있는 사이로 거대한 공룡의 골격이 전시되어 있다.

○ 씨네폴리스(Cinopolis) 영화관

도시명	전국
주소	Calle Juan Aldama 187, Buenavista, C.P. 06350 Buenavista, CDMX, Mexico

홈페이지	http://www.cinepolis.com/
소개	2023년 기준 Cinepolis는 124개 도시에, 477개의 지점을 보유하여 멕시코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영화관 체인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자료원 :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년	2023-01-01	2023-01-01
헌법제정일	2023-02-06	2023-02-06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2023-03-20	2023-03-20
근로자의 날	2023-05-01	2023-05-01
부활절 주간	2023-04-07	2023-04-06
망자의 날	2023-11-02	2023-11-02
혁명기념일	2023-11-20	2023-11-20
성탄절	2023-12-25	2023-12-25
독립기념일	2023-09-16	2023-09-16

10. KOTRA 무역관 안내

○ 중남미지역본부 및 멕시코시티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Paseo de la Reforma No. 265 piso 2, Col. Cuauhtemoc, CDMX, C.P. 06500
- 전화번호: +52-55-5514-3173 / 3174
- 이메일: mexico@kotra.or.kr
- 무역관 소개 웹페이지 :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410>

공항-무역관 이동

멕시코시티국제공항에서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멕시코 국제공항 청사 입국장(E홀)을 나오자마자 E홀의 왼쪽 끝에 위치해 있는 공항 택시 쿠폰 판매소(Taquilla de Taxi: 따끼야 데 딱시)로 이동해 쿠폰을 구입, 공항 건물 밖의 택시 스탠드에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이용해 무역관에 도착할 수 있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대략 20달러 선이며, 공항 택시는 등록된 택시(Taxi Autorizado)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공항 택시 이용이 어려울 경우 UBER, DiDi 등 공유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멕시코시티의 일반 택시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UBER, DiDi 등을 사용한 등록자라면 바로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규 사용자는 전화번호 인증 등의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다.

무역관은 현지에서 코리아타운으로 유명한 ZONA ROSA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립기념탑인 Angel de la Independencia 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다.(도보 5분 소요)

무역관이 소재한 건물은 멕시코 증권거래소 (Bolsa de Valores, 대형 지구본 모양의 건물) 바로 옆의 Reforma 265 라 불리는 Axtel 빌딩으로, 우리 무역관은 동 건물의 2층(한국식으로 5층)에 위치하고 있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객용 출입증을 제공해 주며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mexico@kotra.or.kr)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멕시코 몬테레이 제조산업 전시회	2024-01-30 ~ 2024-02-01	몬테레이	Tarsus México
멕시코 멕시코시티 유리 기술 전시회	2024-07-09 ~ 2024-07-11	멕시코시티	Y T International Enterprise Inc
멕시코 멕시코시티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전시회	2024-07-10 ~ 2024-07-12	멕시코시티	Messe Frankfurt
멕시코 멕시코시티 보안 전시회	2024-04-16 ~ 2024-04-18	멕시코시티	Reed exhibitions
멕시코 멕시코시티 친환경, 에너지 전시회	2024-09-03 ~ 2024-09-05	멕시코시티	Tarsus México
멕시코 멕시코시티 건축자재 전시회	2024-10-15 ~ 2024-10-19	멕시코시티	Informa markets
멕시코 멕시코시티 뷰티 전시회	2024-10-27 ~ 2024-10-29	멕시코시티	RX Mexico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